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45 1983년 2월 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February 1, 1983

FEB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2년간 4만교포 이끌어갈 제18대 회장단

장순채팀 출범

토론토 한인회 정기총회겸 회장단이취임식

"인준총회와 이 자리에서 교민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명감과 신념을 가지고 신임회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읍니다.'

앞으로 2년간 토론토지역 한인사회의 지팡이로 4만교포를 보살피게 될 장순채 제18대한인회장은 29일 오후 한인회관서 열린 신·구회장단 이·취임식을 겸한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장회장은 "집행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무시하지 않고 교민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할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발전적인 한인회를 위해 교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단독후보로 출마, 12월 많은 논란끝에 임시총회에서 인준된 신임 회장단(변의섭·이기훈부회장)은 이로써 정식 출범을 하게되었다.

총회정족수 100명을 넘어선 150여명의 교민이 참가한 가운데 하오3시부터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신영식총무의 사회로 퇴임하는 박인순회장의 인사말, 이상훈토론토총영사의 축사, 82년도 사업및 결산보고, 회관이전·모금위원회보고, 감사보고, 신임회장 취임사, 83년도 사업및 수지예산보고, 회칙개정안, 이사선임위원 인준, 한인회 신임임원단 소개등의 순으로 약2시간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총영사는 축사에서 물러가는 박회장단이 묵묵히 일해온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신임회장단도 전임자의 뒤를 이어 성실히 일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에 이어 이총영사는 박회장을 표창했으며, 이어 최승낙토론토외환은행장도 이수신전무를 통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임회장단은 회원회비(1인당 $20, 금년도 1,000세대 목표)와 이사회비(1인당 $200)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99,750의 신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안건에 올려, 거수로서 통과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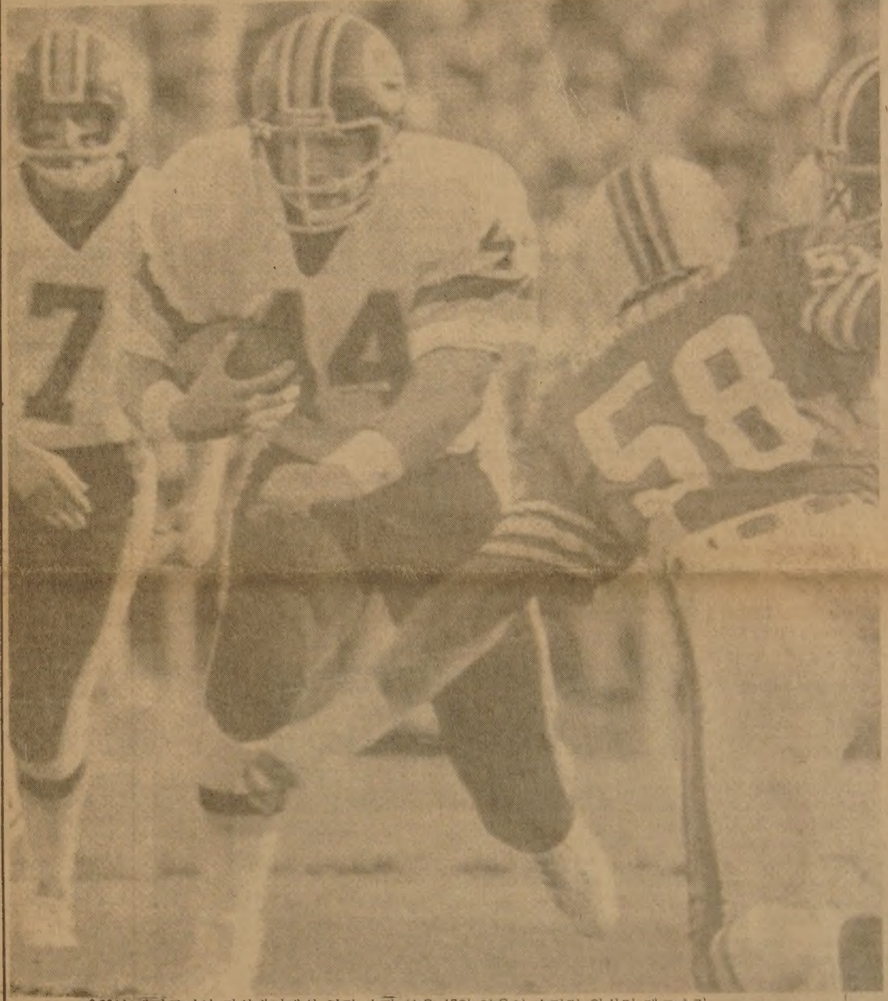
장회장단이 내놓은 16개항의 신년도 주요사업은 ◉2월18일 한인회관에서 모국의 주재상사및 교민간의 대화의 밤 개최, ◉4월16일 토론토에 거주하는 약200명의 6·25 참전용사의 위안을 위한 친선의 밤, ◉5월28일 제2회 문화예술제, ◉6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라반행사, ◉7월 대학생 7~8명을 동원, 교민실태조사, ◉9월17일 추석경로잔치및 장한어머니 표창, ◉10월9일 한인회관에서 한인의 날 행사, ◉83년도 한인주소록 발행등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복기 정관심의위원장이 제출한 회칙개정안이 논란을 거듭한 끝에 애매모호하게 통과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변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9월30일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제11조1항(이사회의 구성)과 2항(이사회선임및 임기)으로 (1)이사 수를 30명에서 60명이내로 증원시키며, (2)이사선임자격은 종전의 회장단3명과 이사장단3명등 6명으로 제한되어 있던것을 이사선임위원 5명을 추가, 11명의 합의로써 선임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도 18조2항의 임원의 "탄핵"'이라는 용어를 임원의 "불신임"으로 개정했다.

이같은 회칙의 통과로 27일 제5차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영현·강공선·박인순·이영목·박광철씨등 이사선임위원의 인준도 있었다. 〈3면에 계속〉

◆취임사를 하는 장순채 신임회장.



◆30일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열린 수퍼·보울 17의 영웅인 승리팀 워싱턴 레드스킨의 존·레긴스(44번)선수와 죠·메이스만선수.(7번) 레긴스는 캐나다출신이다. 〈관련기사 4면〉

호화차량 99대주문

北韓,김정일위해

〈도쿄-연합〉 무역부채의 상환독촉이 날로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김정일개인의 안전을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호화차량 99대를 주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메이커인 닛산회사에 모두 7억4천6백만엥(2백98만달러상당)상당가격의 자동차로 비밀리에 주문했다는것.

99대차량가운데 9대는 방탄유리와 컴퓨터장치가 달린 라디오를 설치, 2억4천6백만엥상당의 가격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차량은 김정일의 생일인 2월16일이전까지 완성되어 북한으로 운송될 것으로 보인다.

김득구선수모친 자살

아들사망 충격, 음독

(고성 31일=연합)이국땅에서 세계권투정상에 도전하다가 비명에 간 고 김득구선수의 어머니 양선녀(66세) 여사가 아들이 절명한지 72일만인 29일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양여사는 이날 하오3시30분 강원도 고성군 고진에 있는 자택에서 극약을 마시고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남편 김호열씨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에 도착하자, 이미 숨져 있었다.

양씨의 가족과 경찰에 따르면 김선수가 지난해 11월13일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WBA라이트급타이틀전에서 챔피온 레이·만시니 선수의 손에 쓰러져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끝내 숨지자, 쇼크로 인해 심한 불면증 증세를 보여왔다.

◆아들 득구가 생사를 헤메고 있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소식을 듣고 넋잃은 어머니 양순녀여사의 생전의 모습.

박신일씨 주미공보관

(서울 29일=연합)한국정부는 29일 문공부 해외공보관 박신일 외보부장을 주미한국대사관 공보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정부는 또한 제네바대표부의 조성장 공보관을 외보부장으로 임명했다.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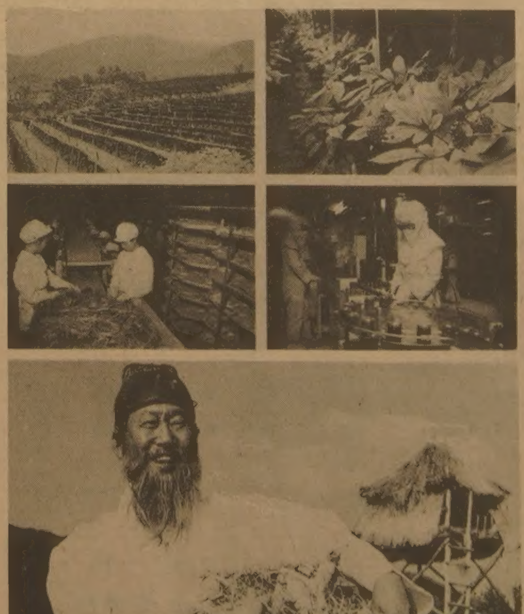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TORONTO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고려인삼
대할인봉사
녹용, 인삼전문 수입상인 빅·세븐에서는 길림산 대혈 녹용 1등품과 중국산 특산 보약 십전대보탕과 고려인삼 6년근을 대량 확보하고, 특별세일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께 봉사하고저 하오니 일차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말 제분하는 써비스도 하오니 많은 애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빅·세븐 귀국 선물 용품 선물센타
678 BLOOR ST. WEST
533-7966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상공인협회 신년인사회

이글튼 시장,「온」주 상협의장등 참석

지난 10월16일 창립된 한인상공인협회(회장 조병엑)는 발족이후 최초의 대외행사로 29일 하오6시 로얄·욕 호텔에서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 F.E. Ibey 온타리오주 상공인협회회장, 이상훈총영사등을 비롯한 한·카인사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및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로얄·욕호텔 튜도룸 입구에서 조회장, 정창헌·김완수부회장, 김무호이사장등이 입장객을 맞는 가운데 정각 6시부터 시작된 칵테일파티는 7시30분 이글튼부부의 입장으로 피크를 이루었고, 7시40분 기념식순으로 들어갔다.

김이사장의 영어사회로 진행된 이날 신년 리셉션에서 조회장의 한국말과 영어로 된 간단한 인사말에 이어 이글튼시장은 "여러 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사회에서 한인상협의 기여가 클 것으로 믿으며 새로 발족된 이 단체가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Ibey회장은 이어 「온」주상협과 한인상협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어 이총영사는 영어로 된 축사에서 "상협의 탄생을 축하·격려하며 앞으로 토론토지역과 한인 코뮤니티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서 한국민과 캐나다국민의 유대강화에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히 상협이 공모한 협회 로고당선작 발표와 당선자 송순태씨에 대한 시상도 아울러 가졌다.

여러 교민들과 악수하기에 바빴던 이글튼시장부부는 정부회장의 부인 강충희씨가 입고 나온 색동 한복에 특히 관심을 보였고 여러 교민들과 기념사진 촬영에 바빴다.

한편 상협은 금년도 사업계획에서 대외 봉사사업으로 상담을 기획, 회계업, 자동차수리업, 패스트·푸드 및 레스토랑 비지니스, 인쇄업, 무역업, 오디오·비도오, 기프트숍등과 비지네스 전반에 관한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장소는 협회 사무실인 240 Duncan Mill Rd. #606이며 전화는 444-3716이다.

또한 동협회는 매년 온타리오주에서 타기업인에 모범이 되는 한인상공인을 선정, 표창할 예정이다.

와이즈맨즈 클럽

새회장에 나상선씨

「토론토 한인와이즈맨즈클럽」(Toronto Korean Y's Men's Club)은 28일 천중환회장댁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로운 회장에 나상선씨(레스토랑 경영), 부회장에 송인문씨(무역), 총무에 나영상씨(사업), 회계에 최상수씨(사업)를 각각 선출했다.

82년도 사업보고와 결산보고를 겸한 이날 총회에서는 한인양로원 건립위원회가 와이즈맨즈클럽으로부터 완전 분리됨에 따라 와이즈맨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YMCA 후원기관으로서의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할것을 결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또한 83년도 YMCA회원모집운동을 적극 후원하기로 다짐했다.

◆한인상공인협회 신년 리셉션에 참석, 교민들과 담소하는 아트·이글튼시장부처. 가운데 김무호이사장이 미소짓고 있고 뒷모습을 보인이가 윤여화 한국학과 후원재단이사장. 이날 수상한 상협 로고현상모집 당선자 송순태씨

한덕창 부회장 인준

제8회 노년회 정기총회

한국노년회(회장 조영호)는 지난29일 하오12시30분 한인회관에서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뱅쿠버로 이사한 김대보부회장의 후임으로 한덕창씨를 인준했다.

성용창부회장과 함께 조회장을 도와 앞으로 남은 1년간 노년회를 위해 봉사할 신임 한부회장은 "생의 마지막 공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년회회원 649명중 78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지난해의 회무보고, 감사보고, 세입·세출보고가 있었으며, 이어 신년도의 사업계획등이 통과되었다.

이날 밝혀진 지난해의 업적으로는 회원증가 28명, 서류대필 421건, 가족수당 32건, 직업알선 2건, 통역 38건등이 있었다.

최기선씨의 조국만세 3창을 끝으로 이 모임은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이날 참석자의 상당수는 곧 이어 한인회에서 제공한 홍보영화를 본후 3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시작된 한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캐나다인구 2,460만

캐나다 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7월말 현재 캐나다 인구수가 총24,62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를 분류해 보면 온타리오주가 8,706,50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쾌백주 6,472,700명으로 나타났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

◆29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한국노년회 정기총회. 서 있는분은 조영호회장. 이날 한덕창씨를 뱅쿠버로 이주한 김대보부회장의 후임으로 인준시켰다.

김대중씨가 말하는 납치진상 ④

나는 사실상 선거 승리자 미국과 일본서 기반 넓혀

박대통령과 나 ②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내가 제1야당 신민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되는 것을 막으려고 전력을 다했다. 당시 중앙정보부 김계원부장은 "염려 놓으십시오. 김대중 따위는 후보가 될리 만무하지요."하고 보고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예상을 뒤엎고 지명을 획득했다. 박대통령은 격노하여 김계원씨를 대만 주재대사로 좌천시키고 주일대사로 있던 이후락씨를 KCIA부장에 다시 앉혀 71년4월 대통령선거의 공작지휘를 맡겼다.

그들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거에서 46%의 표를 획득했다. 이것은 집권당의 심한 부정을 감안할때 기적적 득표가 아닐 수 없다.

박씨는 실제적으로는 선거에서 자기가 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방해자인 나를 없애려한 것이다.

그 첫 시도가 교통사고였다. 71년5월24일 국회의원선거 응원유세중인 내 승용차를 향해서 14톤의 대형트럭이 갑자기 달려들었다. 다행히 운전사가 잽싸게 방향을 틀어 내차의 뒷부분만 받쳤다. 그 충격으로 우리차는 고무공처럼 공중에 붕떠서 길가 논두렁에 떨어졌다. 만약 100m만 더 나갔었더라면 연못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그 트럭운전사를 처벌하려던 검사는 어디론가 전속되고, 문제의 운전사는 단순한 교통사고자로 1년형을 받았다.

"제2의 이승만"

나는 사고로 다친 발치료 등을 위해 72년10월 일본으로 출국, 미국과 일본을 왕복하면서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나는 미국과 일본의 유력한 정치가와 학자, 언론인과 접촉하여 점차로 두 나라에서 폭넓은 지지자를 확보해 나갔다.

박씨는 이 사실에 초조감을 느낀 것같다.

미국에서는 라이샤워교수, 케네디상원위원, 코헨교수등이 중심이 되어 나에 대한 적극적 지지활동을 시작했다.

내가 미국을 떠나 다시 일본에 입국한 것은 납치사건 발생 약1개월전인 73년7월13일이었다.

일본에서 나는 야당이나 여론뿐아니라, 일본여당인 자유당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컨대 일본 자유당에서는 A.A.연구회(아시아·아프리카문제연구회)의 우쯔노미야·도꾸마씨를 비롯, 후지야마·아이이찌로, 아까기·소오도꾸, 시오야·가즈오, 가와노·요오헤이씨등 30여명이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다나까파의 기무라·다께오씨도 나에게 "나는 이제까지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납치사건당일에는 기무라·도시오씨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아래서 나에 대한 도꾜 암살지령이 내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朴大統領 有故

全國에 非常戒嚴 선포

崔圭夏總理 大統領權限대행

通禁은 밤10시로 延長

모든大學 무기한 休校

한국일보

◆충격적 박대통령 암살사건을 전하는 79년 10월27일자(한국일보)

79년10월26일 박대통령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이때 내 머리에 떠오른 것은 박씨가 3선출마를 위해 재선까지 밖에 허용하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려했던 69년 당시의 일이었다.

나는 서울 효창구장에서 "나는 어느달 어느날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만약 박정희씨가 3선개헌을 하면 제2의 이승만의 운명에 빠질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뚜렷한 일이다"고 연설했는데 결국 그때의 내 말대로 된 셈이다.

증오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개인적으로는 박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을 이유는 없다. 박씨가 숨졌을때, 자택연금중이던 나는 유족에게 조전을 치고 만약 일시적으로나마 연금이 풀린다면 청와대로 문상하러 가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박대통령의 국장이 있은 79년11월3일, 김수환추기경은 "박정희씨의 사망에서 우리를 모두는 교훈을 얻게 해 주소서"하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 말은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 (계 속)

시카고~서울 논스톱 直行

NWA, 오는 6월 10일부터 就航

매주 金·日요일 2回

시카고-서울간 논스톱 직행노선이 서울취항 항공사로서는 최초로 미 노스웨스트항공사(NWA)에 의해 오는 6월10일부터 개설된다.

NW의 시카고-서울 논스톱노선시간표는 매주 두번씩 금요일과 일요일 각각 하오4시5분에 시카고를 출발, 서울에는 다음날 하오 7시40분에 도착하게 된다.

세방여행사 개업 11일 리셉션

지난17일 개업한 세방여행사가 오는 11일(금) 하오6시 개업 리셉션을 업소에서 갖는다.

김현두씨가 경영하던 천우여행사를 인수, 상호를 변경한 세방 유승민사장은 "고국방문뿐 아니라 북미나 유럽등 대소 여행을 위한 가장 저렴한 항공표를 찾아 교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31일 말했다.

지난 15일까지 본 토론한국일보사 편집부장을 지낸 유사장은 또한 항공여행뿐 아니라 버스, 기차여행, 렌트·카, 각종 행사를 위한 호텔예약, 여권이나 비자신청등 여행수속, 유학상담등의 업무도 취급한다고 밝혔다.

유사장은 서울서 세방여행사에 근무했고, 미국 나이아가라대학서 관광학을 수학했다.

세방직원으로는 유사장외에 유문원씨, 여행업계에 오래 종사한 에드·잰더씨가 있다.(720 Spadina Ave. #104, Toronto, 블루어 남쪽, 전화 928-3335)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160>

이상한 女人 ⑤

毛世의 소지품과 2천만원 가져와!

상대방은 재빨리 손을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비틀었다. 빠르고 힘센 동작이었다.

『어디다가 손질이야? 건방진것. 살인자가 누구보고 나쁜 년이라는 거지? 여기서 행패를 부려봤자 남의 눈에 띄고 좋지 않을걸.』

문자는 온몸을 경련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용건이 뭐야? 빨리 말해! 빨리 말하란 말이야!』

『이젠 인정하시겠지.』

『경찰이지?』

선글라스의 여인은 킥하고 웃었다.

『경찰도 팔자군.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토막내 죽일 수 있지?』

『용건이나 빨리 말해!』

『그럼 말씀드리지.』

그녀는 연못위로 담배꽁초를 던졌다.

『모세의 소지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나한테 넘겨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건 왜?』

『당신은 알 필요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여인은 웃음을 거두고 싸늘한 표정을 지었다.

『모세의 소지품중에 열쇠가 있을텐데 보지 못했나?』

『글쎄…소지품은 내가 챙기지않았으니까.』

『그럼 당신 오빠가 챙긴 모양이군. 그 열쇠를 나한테 빨리 넘겨 다른 소지품도 모두함께…』

『그게 전부인가?』

『아니지. 그와 함께 2천만원이 필요해. 모세는 그 돈을 받아내는데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아.』

문자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한채 고개만 흔들었다.

『힘들다 이건가? 두 말할 필요없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기서 만나는 거야. 2천만원은 수표로 가지고 와.』

『그 댓가는 뭐지?』

문자는 파랗게 질려 간신히 물었다.

정체불명의 여인은 손가락으로 자기 입을 가리켰다.

『입을 다물어주는 거지.』

『2천만원은 너무 해. 난 돈이 없어. 좀 봐줘요.』

문자는 마침내 애걸하는 조로 말했다.

그러나 여인은 냉소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안돼요. 한푼도 깎을 수 없어. 난 지금 그 돈이 필요하니까. 자, 그럼 내일 봐요.』

여인은 입구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문자는 그녀를 따라가며 애걸했다.

『이렇게 빌겠으니 좀 봐줘요. 2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거예요? 제발 봐줘요. 부탁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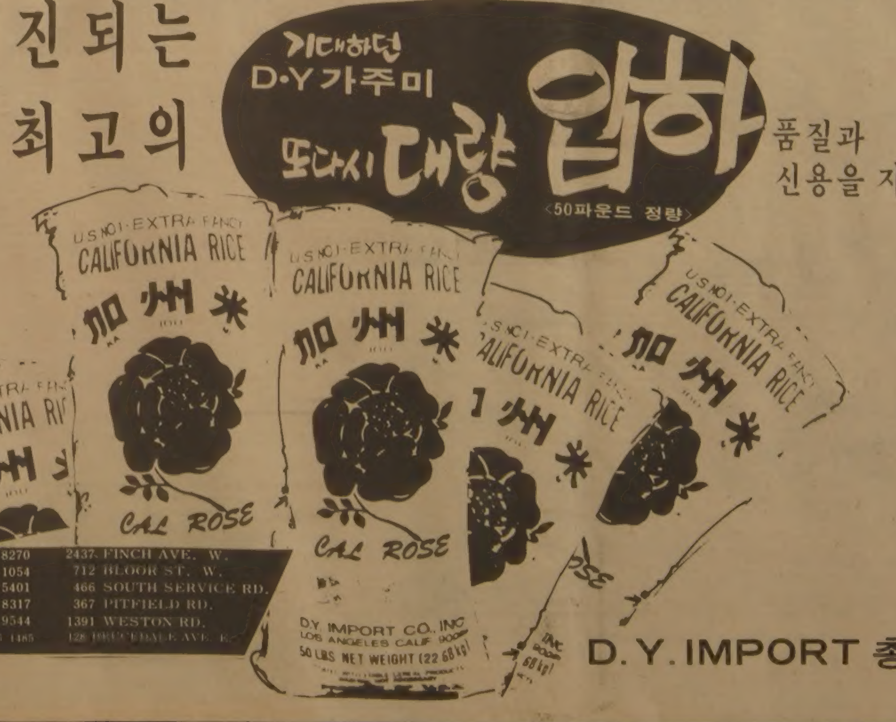
여인은 멈춰서서 싸늘하게 문자를 바라보았다.

『돈 2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지? 만일 체포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시나? 당신은 사형이야. 물어볼 것도 없이 사형감이야. 돈 2천이 중한가, 목숨이 중한가 한번 생각해봐.』

朴男 그림

도착즉시 매진되는 인기최고의

기대하던 D·Y가주미 또다시 대량 입하 <50파운드 정량>



[illegible]		743-8270	2437 FINCH AVE. W.
[illegible]		532-1054	712 BLOOR ST. W.
[illegible]		274-5401	466 SOUTH SERVICE RD.
[illegible]	동부	291-8317	367 PITFIELD RD.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해밀톤	1-385-1485	128 [illegible] AVE. E.

품질과 신용을 자랑하는 각종 D.Y. 물품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읍니다.

- ●참기름
- ●국수종류
  - ㅁ막국수
  - ㅁ우동국수
  - ㅁ소면
- ●당면
- ⊕D.Y. 각종 밑반찬
  - ●D.Y. 낙지
  - ●D.Y. 멍게
  - ●D.Y. 해삼

D.Y. IMPORT 총판 오기환 ☎: 622-5379

◆충분한 지지를 못 얻어 당수직을 사임하겠다고 발표한 조·클락 연방보수당 당수가 29일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로부터 악수세례를 받고 있다.

보수당 새지도자 선출

66.9% 지지얻은 조·클락 사임 표명

(위니펙)조·클락 연방보수당당수는 28일밤 이곳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곧 사임할 것이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당수선출전당대회를 소집할 것을 당 전국집행위에 권고하겠다고 발표한지 2일만에 당수직 도전자가 나타날때까지 사임을 보류하겠다고 번복했다.

보수당 당수후보자들로서는 온타리오주의 윌렴·데이비스수상, 앨버타주의 피터·로히드수상등 여러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나선 사람은 없다.

조·클락당수는 30일 당새 집행부와 90분간 회담을 가진 뒤 "당 지도자에 관한 불안감을 더 이상 지속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클락당수는 지난 28일 전당대회에서 투표결과 66.9%의 지지율을 얻자 당수선출대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즉각 당수후보로 나선다고 밝혔었다.

지난 81년 투표에서 얻은 66.4%를 겨우 능가한 이번 지지율로서는 "연방선거가 수개월내로 다아온 현단계로서 자신이 당을 이끌어 나가기에 충분한 신임을 줄 정도가 못되었다"면서 당수직을 사임할 것을 밝혔었다.

보수당집행부는 앞으로 최소 2주일이 지난 뒤에나 당수선출 전당대회에 필요한 시간계획표가 짜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빠른 시기는 6월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클락이나 그동안 연방보수당에서 끈질기게 클락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브라이언·말로니에게는 빠른 시일내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유리한 반면, 「온」주나 앨버타주 수상등 그동안 연방보수당내의 정치작업을 해오지 않은 인사들에게는 늦으면 늦을수록 유리해 질것으로 정계 옵저버들은 평가하고 있다.

당장 大統領選擧 해도 글렌 議員出馬면 당선 해리스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선거가 당장 실시되어 존·글렌연방상원의원이 출마한다면 55%대 42%의 차이로 국민들에게 레이건대통령보다 인기가 높은 글렌의원이 당선될 것이라고 가장 최근의 해리스여론조사가 밝혔다.

글렌은 지난해 4월 레이건보다 3%차로 인기가 떨어졌으나, 지금은 오히려 더 인기가 높아져 유력한 대통령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월터·먼데일부통령보다도 레이건에 대한 인기를 앞지르고 있다.

가짜환자 4~8천명 美國해마다 늘어나

간호·관심받고 싶어

매년 미전국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가짜환자들의 숫자가 4천 내지 8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정말 자신이 병에 걸려있다고 믿고 있는 우울증환자와는 달리 간호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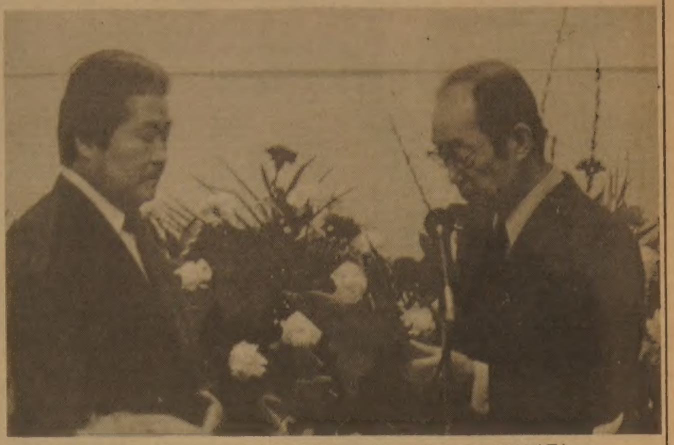
그런데 가짜 환자들은 거의 병원비도 지불하지 않아 이들의 미납액이 연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사이컬러지 투데이」잡지에 실린 한보고서는 집계했다.

한편 몇몇병원에서는 이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콜로라도주와 테네시주내 병원협회들은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가짜환자」들의 명단을 각병원에 송부하고 있다.

〈1면에서 계속〉

장순채 회장,변의섭·이기훈 부회장

18대 회장단 출범



◆이상훈 토론토총영사로부터 공로패를 받는 퇴임 박인순회장(왼쪽)

회칙개정

최위원장은 회칙개정 제안설명에서 이사수를 2배로 증원시키자는 이유는 1)유능한 인사를 많이 발굴, 중요안건시 보다 신중을 기하며, 2)재정면에서 이사회비가 따라서 2배늘어 한인회의 재원에 보탬이 되며, 3)교민들의 회비납부가 부진해 회비징수 독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지난해 회비납부자는 68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들은 발언을 통해 이사회가 집행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감사결과도 있는데 이사수가 2배로 증가되면 불협화음이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고 조크를 하기도.

개정안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자 노인들을 포함한 일부 참석자들이 일어나 퇴상하기 시작하자 정인기씨가 그대로 통과시키자고 재청하고 김용환씨가 동의했다.

그러자 원영신씨가 긴급발언을 통해 재적수 확인부터 하자고 제의했다.

주최측은 회의장 밖에 서있던 회원까지 카운트 112명이라고 보고되었고, 이중 71명이 거수로서 통과를 찬성, 장회장이 가결을 선포했다.

원씨가 112명의 3분의 2는 74명이므로 71명찬성이면 3분의2 찬성이 되지못하므로 부결이지 어떻게 가결이냐고 묻자, 다시 거수로 확인해 보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의거 가결이 안되는 것은 부결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변부회장은 총무가 한국정부공관, 은행원등 비한인회원까지 잘못 참석자수에 넣었기 때문에 통과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때 사회를 보고있던 장회장이 회중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오윤섭씨가 선포된 것이니 그냥 밀고 나가자고 제의했다.

"숫자가 무슨 문제냐"

장회장은 다시 함이사장에게 의견을 묻자 함이사장은 공관원과 은행원을 빼면 전체수가 줄어 기명이 3분의2가 되니 그냥 가결된 것으로 하자고 말해 다시 통과된 것으로 장회장이 새로 선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오씨는 "숫자가 문제아니니 그냥 밀고 나가자"고 말한데 대해 참석자중 일부는 회의가 끝난후 "숫자를 헤아리는 마당에 숫자가 문제가 아니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보고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지난 18일 한인회관에서 실시된 문인식·오현구감사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오감사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공문서에는 대체로 관계자의 날인이 없다. ▲회의록이 잘 보관되어 있지 않다. ▲가구및 비품은 본래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분실여부를 알 수 없다. ▲도서관의 상당수의 도서가 분실된 상태이다 등이다.

한인회보 재검토돼야

또한 문감사가 제출한 재무감사에서는 ◉사업예산안도 없이 발간되는 한인회보의 발행은 막대한 시간과 경비의 댓가보다는 훨씬 적은 교민의 반응으

회칙 개정안 변칙통과

총회 무시한 회관관리위원회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단입후보 등록공고 지연및 당선공고 지연등 그의 기능과 직무수행을 하지않았다. ◉회관확장·이전모금위원회의 회관이 전에 관한 전체적인 청사진이 되어있지 않고 목표의식도 부각되어 있지 않다. ◉회관관리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가 시급히 요청되며 적자운영을 탈피하도록 노력을 해야한다. ◉야구대회, 청소년예술제, 카라반행사등에는 합법적인 영수증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등의 시정할 점이 적발되었다.

감사보고가 끝나자 박회장은 지적된 사항이 많은 이유중 큰 이유는 유급직원이 오간사 1명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유급직원을 1명 더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회관모금 바자

회관이전모금위원장인 조한철박사는 현황보고를 통해 현재까지 모금액은 약정금포함 $10만달러이며, 현금은 $24,000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금년에는 모금활동의 일환으로 4월경에 KOTRA의 도움을 받아 바자회를 개최하며, 금년중에 모금자선파티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회관확장·건립기금、대차대조표에는 12월31일 현재 은행계정 $6,042, 정기예금 $15,243, 이자미수금 $206등 총자산이 $21,491로 나타나 있다.

조위원장은 회관이전 모금위원회를 6월13일 결성했으며, 위원으로는 한덕창·장영대·임윤식·강공선·최복기·최영식씨등이라고 발표했다.

결산보고

박회장단은 또한 토론토에서 유일한 공인회계사인 현영일씨를 통해 감사비 $3,000을 들여 1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회계감사를 실시했다고하며 그 결과가 이날 발표되었다. 이같은 전문가에 의한 외부감사는 한인회 역사상 처음있었던 일로 이는 정확한 회계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감사가 이렇게 오래 걸린이유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외부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월31일 현재 한인회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총자산은 정기예금 $34,705, 건물 $20만, 장비 $14,343등 $277,059이며, 채무는 $19,153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수입·지출결산서를 보면 총수입 $137,969에 총지출은 $115,849로 $22,075의 수입초과를 보였다.

회의장 스켓치

●이날 총회 참석자중 상당수는 노인층이였다. 그 이유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1시부터 노인회 정기총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노인회원들은 총회가 중반에 들어서자 피곤한 기색을 보였으며 조는사람도 있었다. 회의가 끝날무렵에는 좌석이 많이 비었다.

●회의장입구에서 총회관계자료와 함께 전두환대통령의 일대기인 「황강에서 북악까지」와 전대통령 캐나다방문들 사진과 함께 기록한 "Parific Partners"가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배부되었다.

●회의장내에는 외환은행, 한일은행, 조흥은행, 번영회, 실업인협회, 88년 올림픽위원회, 노년회등에서 보낸 13개의 큼직한 화환이 즐비하게 놓여 회의장 분위기를 보다 밝게 해주었다.

●감사결과 발표뒤,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자 참석자중의 누군가가 결산보고의 가결이 있기전에 감사보고가 있어야지 결산보고가 통과된 후에 감사결과를 들어 무슨소용이 있겠느냐고 회순의 부당성을 지적하자 주최측은 앞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순에는 회관관리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으나 차례가 되어도 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자 당황한 박회장은 "지상으로라도" 사과와 함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넘겨버렸지만 회관에서 총회가 있는데 회관관리위원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직접 못나오면 부회장이나 위원중의 누군가 회장을 대신해서 보고를 하면 될 것인데 회장이 없다고 보고를 하지않고 넘어가는 것은 당치도 않는 처사라고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

화제인물

32년만에 훈장받는 참전용사

키치너 전한인회장 허영수씨

학병으로 6.25에 참전, 무공을 세운 역전의 용사가 당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훈장증서만 받았다가 32년이 지난 이제 캐나다땅에서 본국정부로부터 뒤늦게 그때의 훈장을 수여받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해까지 키치너·워털루지구 한인회장직을 맡았던 허용수(53세)씨로 허씨는 28일 토론토총영사관을 통해 본국정부가 수여하는 「무성화랑 무공훈장」과 훈장증을 전달받았다.

이날 하오3시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있은 훈장전달식에서 허씨는 "당시 학업을 중단한 것이 평생 한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 생각할때 국가가 어려움을 당했을때 공을 세운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남통영중학교(구학제) 5학년때인 50년9월, 당시 19세의 허씨는 학병으로 입대하여 52년도에 수도사단 18연대 백골부대소속으로 동부전선에서 전공을 세워 그해 11월10일 육군명령 206호로 훈장수여증만을 받았다.

69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온 허씨는 이 증서를 고이 간직해 오다가 지난해 11월말 서울병무청에 훈장교부를 청원, 국방부장관은 육군본부의 확인을 거쳐 사병에게 수여하는 훈장중 최고훈장인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28일 허영수씨(왼쪽)에게 본국 정부에서 보내온 무성화랑 무공훈장을 달아주는 이상훈총영사.

약70세대의 교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워털루에서 4대째 한인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허씨는 「한국참전캐나다용사회(Korean Veteran's Association Canada)의 전국이사(National Director)겸 케임브리지 13지구 이사직을 맡고 있다.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전국이사가 된 경위를 묻자 6.25전쟁 당시 영국후방사령부에 파견근무한 군경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캐나다에서는 아버지가 죽게되면 아버지가 달던 훈장을 아들이 오른쪽 가슴에 달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읍니다. 나도 아들에게 애국심을 길러주기 위해 아버지의 훈장을 물려주고 싶었읍니다."

허씨의 아들2명중 둘째아들 영진군은 캐나다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며, 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는 첫째아들도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 캐나다군대에 입대, 예비군하사로서 활동해왔다.

허씨는 「한국참전캐나다용사회」의 회장단이 자신의 주선으로 키치너에 있는 한인학교를 정식으로 방문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전하면서 이같은 일은 처음있는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진다면서 자랑스런 표정을 지었다.

토론토의 조지·브라운대학에서 치과위생학을 전공하는 큰딸과 13학년에 다니는 둘째딸도 두고 있는 다복한 가장이기도한 허씨는 현재 혼자의 힘으로 3년에 걸쳐 2에이커의 대지에 3,400평방피트의 자택을 짓고 있다고 전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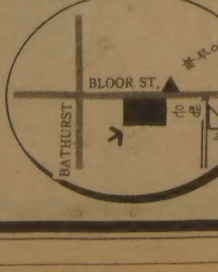
기독교회관 요한 화랑

Grand Opening 인사드립니다.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이민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적은 대화의 공간을 마련해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애용을 바라며 우선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대신합니다.

1983년 1월 이 준 관 올림

□성화 □초상화 □기독교서적 □성가테이프
□각종 선물용상품 □다양한 디자인의 액자



549 BLOOR ST. W.

☎ : 532-7909(B) 749-7493(R)

수퍼·보울 17, 최우수선수는 레긴스

워싱턴·레드스킨 승리

칼리포니아 파사데나에서 열린 NFL 수퍼·보울 17에서 많은 팬들의 예상을 뒤엎고 워싱턴·레드스킨이 마이아미·돌핀즈을 재치고 승리했다.

흥분의 열기와 스릴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초반에서는 마이아미·돌핀즈가 약간 우세한 경기를 보였으나 레드스킨이 결국 27대17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레드스킨은 10년전 수퍼·보울 7에서 돌핀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 최초로 수퍼·보울 참피온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오후3시부터(토론토 저녁6시) 시작된 이날 결승전에서 레드스킨의 존·레긴스 선수는 수퍼·보울 사상 최장거리 역주의 기록으로 팀 승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되었다.

33세로 235파운드의 몸무게를 가진 레긴스선수(백넘버 44)는 쿼터백 데이스만 선수의 재치있는 패스를 받아 제4쿼터에서 43야드의 대쉬를 한후 타치다운 함으로써 총38회 전진 166야드 역주의 대기록을 세웠다.

레건 미대통령은 게임이 끝난후 선수실의 각 팀 코치에게 전화를 걸어 레드스킨에게 승리를 축하하고, 돌핀에게는 위로의 격려를 해 주었다.

승리팀의 죠·깁스 코치는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레드스킨의 승리로 대통령의 위신을 세웠으며 경제정책에 도움이 될것이냐고 농담했다.

이날밤 레드스킨의 승리로서 NFC는 2년 연속 우승하는 영광을 얻었다.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레드스킨구단주 잭·켄트쿠크씨(중앙)와 죠·데이스만선수.(왼쪽) 이날의 히로인 존·레긴스선수(오른쪽)

NHL 올스타 게임 2월8일 뉴욕에서

제35회 아이스·하키 NHL 올스타게임이 오는 2월8일 작년도 스탠리·컵의 우승팀인 뉴욕 아일랜더즈(뉴욕·유니온데일 도재)의 홈·링크에서 개최된다.

◆웨인·그레츠카선수

NHL은 최고 소속 캄벨·컴퍼런스와 프린스·웨일즈의 올스타 팀을 선발 발표하였다.

금년도 NHL 최우수선수로 선발된 에드몬튼의 웨인 그레츠키선수를 비롯해 소속 각팀에서 선발된 우수선수로 구성된 양팀은 서로의 기량을 팬 앞에서 선보이게 된다.

이 선수들은 NHL 산하팀이 산재해 있는 10개도시에서 각 3명씩으로 구성된 30명의 프로하키기자협회의 투표로 결정되었다.

그레츠키선수의 경우 150점만점에 16점을 얻어 최우수 올스타로 뽑혔다.

그레츠키선수는 금년 시즌중 42골과 127점 득점찬스중 85회를 "어시스트"해주어 득점경쟁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올스타 선발에서도 유명한 칼가리의 맥도날선수와 시카고의 윌슨선수를 제치고 최고 득표를 얻었다.

부쉬副統領·슐츠國務

유럽·亞洲순방길에

조지·부쉬부통령과 조지·슐츠국무장관등 정부최고 직책을 맡고있는 두사람이 지번주말 레이건의 외교정책에 대한 회의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및 아시아제국의 이해와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여행을 떠났다.

29일 출발한 슐츠장관은 도꾜와 북경, 한국, 홍콩등 아시아지역을 12일간 순방하며 특히 유럽의 미국핵무기배치균형에 관한 일본과 중공의 강력한 지원을 얻고자하는 한편 소련이 SS-20중거리미사일을 우랄산맥서쪽에서 빼내어 시베리아쪽으로 옮길 경우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30일 서독 본으로 떠난 부쉬부통령은 중거리핵미사일을 서독에 배치하는데 대한 서독국민들의 지지하락을 필사적으로 무마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목적이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출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性교육 모두말합시다

父母와 자녀가 함께읽는 시리즈

아내의 사회공부 적극 도와줘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장래를 촉망받던여성도 결혼을 하여 아이를낳고 가정주부가 된 면 별 수없이 교육수준과는 관계없이 평범한 부인이 되고 마는 수가 흔히 있다. 개미 쳇바퀴 도는 식의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부모님에 아이들에 둘러싸여 별로 빛도 안나는 일에 종일을 보내다 보면 신문한장, 책 한 페이지 읽을 틈이 없는 것이다. 어쩌다 틈이 잠깐 있어도 습관은 이미 굳어 버려 펜을 잡겠다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잘하면 음악이나 좀 들을까? 이러는 동안에 사회에 나가 무서운 경쟁속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남편은 그 하루하루에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틈엔가 완전히 간격이 생겨 이제 부부간에 대화가 안되게 된다.

서로 안타깝지만 그간의 생활들이 두사람을 그렇게 떼어놓은 것이다. 서로 말이 안통한다며 불평이다. 주로 아내가 사회의 물정을 모른다는것으로 낙착된다. 도대체 「그러면 이런 현상은어떻게해서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에 문제가 있게된다. 만일 아내가 사회의 물정을 너무 몰라서 대화가 안될정도로 퇴보를 했다면 이런 답답한 아내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수가 있다는 말인가. 나아가 둘이 다 늙고 슬하의 자녀들이 다 떠났을때 남겨진 두사람은 무엇을 어떻게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남자는 남자친구와 여자는 여자친구와 밖에서 어울려 다니고 집은 그저 밥먹고 옷갈아입는곳이면 되는것인가. 물론 그럴수는 없다. 현재의 지식층노인(주로 남성)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다.

과거의 여성들은 사회참여를 하지않았고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다하여 여성은 말을 안해야했다. 그분들이 이제 부인과 대화가 안되어 고독하고 피로움을 느끼는것은 시대성이 있어 많은 책임이 거기에 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의 경우는 다르다. 만일 지금, 옛날을 살던 그분들의 경우를 그대로 답습하여 아내는 살림만 하는 사람으로 남겨둔다면 후에 가서 크게 후회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두사람은 설계를 잘해야 한다. 남편이 직장에 나가 사회를 배우는 동안에 아내도 살림을 하면서도 일반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

지리하게 반복되는 생활에 늘어질 때는 늘어지기만 할 일이 아니다. 무언가 자신도 열심히 닦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사회를 배워야 한다. 무언가 알아야 자녀를 교육시킬 것이고 그래야 남편과의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때의 남편의 태도가 크게 영향을 준다.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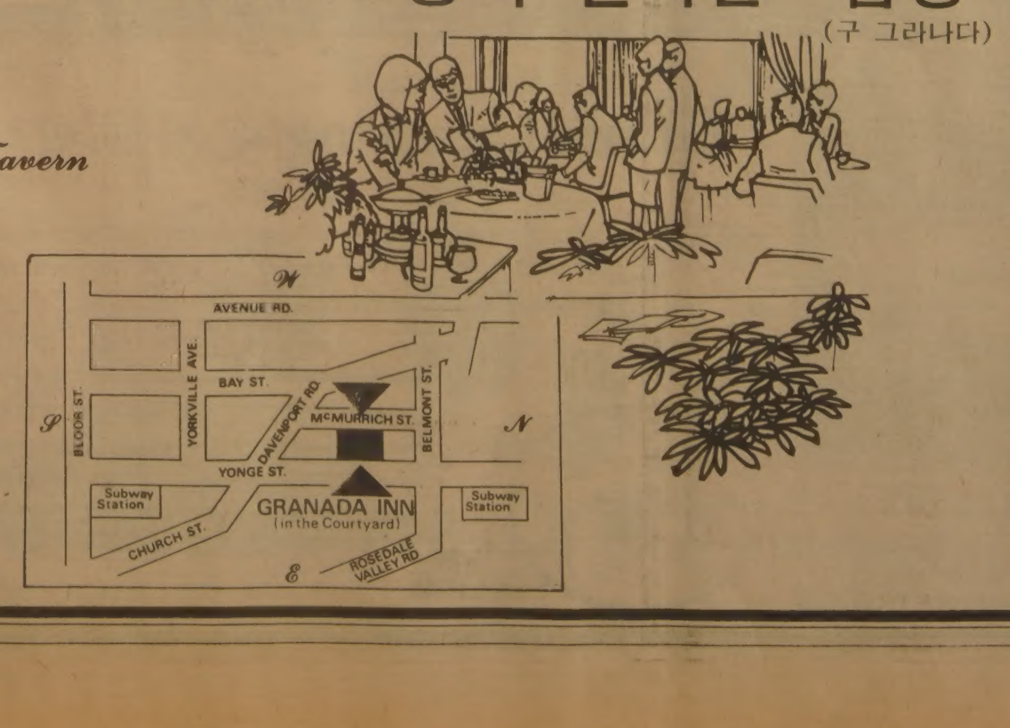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병헌

적은 비용으로 알찬 효과를 보는 한국안내광고란

Granada Inn
南江
Restaurant & Tavern
920 YONGE ST.
(north of Bloor)
923-3060
대표·이영규

PARKING장이 편리한 "남강"에서 만납시다.
(구 그라나다)



한국인의 기호에 맞는
⊙오뎅백반, 모리소바, 냄비우동
일본식의
⊙스시, 사시미, 뎀뿌라, 각종 데리야기.
오는 2월6일 일요일부터 영업시간을
⊙일요일 낮12시부터 밤12시까지 영업합니다.
※중화요리는 럭키스타에서 다년간 일한 중국인 왕씨가 맡고 있습니다.

★PARKING★
지하 PARKING은 오후 9시부터 무료이며 토, 일요일 무료입니다. 특히 주위에는 많은 PARKING장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0萬원짜리 國民車개발

商工部보고 2年內 農村用 다목적車도

◇全대통령이 올해 商工部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있다。

全대통령指示

"原油3億弗어치 절약 국산부품 輸出주도품으로"

全斗煥대통령은 27일 상오 청와대에서 상공부와 동자부로부터 각각 새해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金東輝상공장관 金炯培공업진흥청장 洪性佐특허청장으로부터 소관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에너지절약을 위해 原油수입량을 당초 계획량보다 3억달러정도 줄여 우리 모두가 3억달러에 해당하는절약을 위해 합심노력해 나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 『수입자유화시책은 우리기술향상에 기여하고 국내기업인들의 경쟁을 촉진하며 기술혁신의 계기가 되도록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펴나가도록 하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 국산部品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케해 部品수출이 우리수출의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수 있도록 정책지도를 펴나가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최근의 일부工産品값인하와 관련, 『앞으로도 계속 가격인하요인이 발생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적절한 가격인하를 해나가도록 잘 계도할것』을 당부하고 『상공부를 비롯한 모든 산하기관 직원들은 관료적인 자세를 버리고 기업과 한편이돼 기업을 도와 수출신장을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최근 외국商標를 그대로 붙여 파는 업체가 많아 상거래질서에 문란을 가져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국내기업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해외駐在무역진흥공사(KOTRA)직원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공관장휘하에 들어가 업무를 수행토록할것▲품질관리(QC)활동을 통해 不良率을 최소화시켜 原價절감과 수출경쟁력강화에 노력하고▲소비자보호와 상품의 품질향상차원에서 현재의 불량工産品신고소를 금년에는 더욱 활용토록 할것▲공업부문의 설계기술분야를 향상시키도록 특히 노력할것등을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徐相喆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은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에 대비, 모든 部處가 체육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汎정부적 차원에서 할일을찾아 최선의준비를 다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동자부는 에너지주무부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에너지절약에 최우선을 두어 정책을 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모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에너지대책을세워 추진해나가란』고 아울러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최근 가스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대비 大型사고를 막을수있는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광산지역 근로자들의 복지대책을 연차적으로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하고 특히 광부들의 落磐등 안전사고를 방지하는안전대책을 잘세워 시행해나가라』고 당부했다.

李外務, 어제귀국

李範錫외무장관은 1주일간의 泰國및 印度공식방문을 끝내고 27일 하오 KAL편 귀국했다.

許 前정무수석向美

許和平前청와대정무제1수석비서관은 美國헤리티지財團초청으로 이재단연구소에서 客員연구원으로 연구하기위해 27일하오 KAL편으로 출국했다.

올부터 石油생산 착수

動資部 보고, 4鑛區·마두라등 油徵지역서

全斗煥대통령은 27일 金東輝상공부장관, 徐相喆동자부장관으로부터 상공부및 동자부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徐相喆동자부장관은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하고있는 油田중에서 油徵발전지역에 대해 경제성을검토한후 생산계획에 착수하고 석유, 전기, 석탄등 에너지가격을 단계적으로 자율화시켜 나가는한편 에너지절약시책을 통해 올해 총에너지의 5%인 5억달러 어치를 절약하겠다고말했다.

徐장관은 올해 우리나라대륙붕 제4광구에서 1개孔, 유징발견확률이 높은 인도네시아 西마두라해저 유전에서 3개孔등 모두 4개孔을시추, 油徵이 발견된지역에선 경제성을검토후생산계획에착수할 것이며 단독광구 2천㎞와 한일공동구역 4백㎞에대한 物理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徐장관은 이어 현행에너지 가격에 대한 직접규제방식이 기업의 대정부의존심화와 경쟁력약화를 심화시키는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단계적으로 시장경쟁 원리를도입, 자율화시켜 나갈것이라고말했다.

석유제품은 1단계로 휘발유 벙커C油값을내리고 등유 경유값을 올리는등 油種간가격구조를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키고 2단계로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갈것이라고말했다.

전기요금은 주택용및 업무용누진제를 완화하고 種別요금과 피크타임제도를 개설하며 석탄과 연탄가격도 투자를 촉진하고 탄질을 향상시킬수있도록 가격체계를 개편키로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자부는 올해 총에너지의 5%를 절약시키위해 지금까지의 단순절약에서 열효율제고에의한 원천적절약을, 행정규제에서 자율적으로 절약토록 유도하고 대기업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절약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동자부는 이를위해 에너지 절약시설자금을 1억원 추가 조성, 4천억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시멘트업체에이어 제지·섬유·식품업체의 연료대체, 중소기업 1만1천개업체에대한 에너지진단과 기술지도를, 에너지 多消費 1백개업체에대한 목표原單位를 설정, 시행키로했다.

한편 이보다앞서 金東輝상공부장관은 올해 상공시책을 ▲수출의 지속적증대와 내실화▲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합리화▲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며 85년까지 대당 2백만원내외의 도시중산층용 승용차, 3백만원짜리 농촌용 2~3인승 트럭을 개발, 보급해 나갈것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올해 수출목표 2백35억달러를 달성키위해 기계, 전자, 자동차, 선박등 중공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경공업제품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며 GATT의 反덤핑협정에 가입하는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처하는 중점적통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특수지역과의 直交易확대및 자유무역지대진출을 촉진하고 정부수입품이나 대형구매및 투자산업발주때, 수출입을 연계화하며 연불수출자금을 작년의 6천3백억원에서 7천7백90억원으로 23%를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수입자유화율을 82년의 76·6%에서 올해 78~80%로 내리고 수입자유화대상 품목등을 금년중에 예시, 84년부터는 수출자유화 豫示制를 실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전자산업을해심전략산업으로 선정, 산업용전자및 부품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체제 확립등으로 전자산업의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전자계산기, 통신기기, 사무자동화기기, 산업용전자등을 첨단기술산업으로 중점육성해 나가고 반도체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한국산업경제 기술연구원에 정보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해외공관등에 국산품사용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아파트分讓價 凍結

金건설 原價절감 작년水準유지를

정부는 올해 신규분양되는 공공및 민간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동결, 작년수준을 유지토록 할방침이다.

金宗鎬건설부장관은 27일 정부가 올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시책으로 삼고, 각종 공산품가격을인하토록유도하고있는시책과 관련, 주택공사와 각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아파트들은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경영개선을통한 원가절감으로 분양가격을 작년수준에서 유지토록 강력히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민간아파트의 사업·분양계획승인권자인 서울시및 전국각시·도에 아파트분양 가격동결방침을 시달하는한편 주택사업자협회및 민간주택업자들과 간담회등을통해 분양가격 억제를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펴나가기로했다.

건설부관계자는 아파트분양가격을 작년선으로 계속억제키로한것은 택지·노임·자재비등이 다소 오른게 사실이나 공공아파트의경우 울과지방의 분양가격차등제를 확대실시키로했고 설계와 공법을 개선, 원가절감을 통해 평균분양가를 낮출수있다는 원가분석에 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아파트는 현재의 행정지도가격(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이하는 평당 1백5만원, 그이상은 평당1백35만원)이 住公아파트 분양가격에비해 결코 낮지않은수준이므로 기술개발, 경영개선을 하면 작년가격선유지가 가능할것으로 보고있다.

더우기 일부 아파트업체가 호화아파트를 지어 비싼값에 분양함으로써 다른 아파트값까지 인상을 자극하는요인이 되고있으며 호화모델하우스 경쟁, 그릇된 판촉활동등을 지양하면 경영개선과 새로운 기술개발등으로 분양가격인상을 억제할수있으며 나아가서는 값싼 서민용주택공급을 늘려나갈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대해 민간주택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및 주택건설가격에서 60%이상을 차지하는 택지가격이 지난1년동안 평균 15~20% 올랐고 임금과 자재값도 각각 평균 10%정도가 이미 오른점등을 들어 가격동결에 어려움을 표시하고있다.

민간아파트 회사들은 올들어 분양된 일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이 작년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왔는데도 오히려 행정지도가격을 철폐하고 대신 각사가 분양가를 자율결정하도록 해줄것을 요구해왔다.

公職者 재산등록 59·4%

마감을 5일 앞둔 26일현재 재산등록대상 공직자들중 행정·입법·사법부등 3府의 총대상자 6백44명가운데 3백62명으로 59·4%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부별 등록상황을 보면 행정부가 대상자 2백94명 가운데 2백12명으로 76%, 국회가 2백79명중 96명으로 34%, 司法府는 71명 가운데 54명으로 76%의 성적을보였고 등록처관계자는 행정부의 등록대상자가운데 재외공관에 근무하고있는 외교관 11명이 등록기간 연장신청을내 2월중에 있을 공관장회의에 올때 등록을할 의사를밝혔다. 나머지 대상자는 마감일인 1월말까지 등록을 마칠것같다"고 내다봤다.

美·蘇두곳서 減縮협상

【제네바聯合=聯合】미국과 소련군축협상대표들은 신축성있는 협상자세를 취하라는 西歐국가들의 對美압력이 점증하고있는가운데 27일부터 2개월예정으로유럽배치중거리 미사일감축협상을개시했다.

폴·니치 미국측수석대표와 율리·크비친스키 소련측수석대표는 이날 제네바소련대표부에서 회담을 시작, 2개월동안 소련과 미국대표부에서 번갈아가며 매주 2번씩 협상을 벌인후 본국정부와의협의를 위해 2개월정도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측대표단의 한대변인은 니치수석대표가 26일 미국측대표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빈聯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동맹기구는 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의 앞서 對서방평화공세에따른 소련측의 새로운 입장이 기대되는가운데 27일 빈에서 지난 6주간 휴회됐던 중부유럽 상호감군협상을 재개했다.

◇"다나까 議員職사퇴하라" 항의 舊에도(江戶)경찰복장을 한 시위군중들이 26일밤 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 前日本수상의 의원직사임을 요구하면서 東京시내를 행진하고있다. 막강한 정치력을 발휘하고있는 다나까씨는 이날 록히드사건과 관련, 1심결심공판에서 최고형인 5년징역을 구형받았다.【東京26日AP聯合=聯合】

韓·EC 高位협의회 3월중순 서울 開催

한국과 EC(歐洲공동체)간의 제1차高位協議會가 오는 3월중순께 서울에서 개최된다.

처음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지난24일 盧載源외무차관과 레슬리·필딩 EC對外관계총국장간의 합의에 따른것으로 제1차 고위협의회에는 李範錫외무장관과 빌헤름·하퍼캄프 EC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양측수석대표로참석, 韓·EC간의 협력확대및 통상진흥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EC가 關係設정기 협의회개최에 합의한것은 양측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단위로서의 상호 중요성을 인식하고 急增하는 交易量에따라 서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국은 일본및 中共에이어 EC와 정기협의회 채널을 갖는 아시아 지역 3번째 국가가된다.

외무부의 한관계자는 27일 『EC가 우리나라와 정기협의회를 갖는것은 여지껏 섬유쿼터등 실무적인차원에 있었던관계를 대등한 파트너로 차원을높여 인정한것을 의미한다』면서 『협의회는 상호交易문제를 다루는외에 국제정세에관한 폭넓은 의견교환기회도 되기때문에 EC국가들에 南北韓문제에관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말했다.

李체육부장관도 朴東鎭외무위원장 오늘中東지역巡訪

정부는 中東및 아프리카제국과의 우호협력증진을 위해 朴東鎭국회외무위원장과 李源京체육부장관을 대통령특사자격으로 이들지역에 파견키로 했다.

朴위원장은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등 중동지역 4개국을, 李장관은 모리타니, 수단등 2개국을 각각 방문, 이들 국가의 원수를 비롯한 주요지도자들과 회담을 갖고 韓半島 정세및 우리나라의 門戶개방정책을 설명하고 상호 현안문제와협력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朴위원장과 李장관은 28일 출국한다.

南北회담제의 지지 이집트紙보도

【파나마=聯合】이집트의 알고무아紙는 25일 全斗煥대통령의 거듭된 南北정상회담촉구와 韓半島의 평화적통일을 성취키위한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찬양했다.

이신문의 칼럼니스트인 모하메드·알·에자비씨는 『철조망제거촉구』라는 題下의 기사를통해 韓半島통일을 향한 첫단계조치는 적대감의제거가 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全대통령의 南北韓최고책임자 會議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社会漫評

식별이 쉬워서 앞으로 편리하겠다…

地平線

60년대말「學生운동」의 거친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 파리의 ENA(국립행정대학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ENA는 프랑스의 運命을 지고 갈 「엘리트」들이 꼭 거쳐 가는 관문이다. 졸업때면 취직처를 각자 지원토록 한다. 그런데 그해의 수석졸업예정자가 保健省을 희망한 것이다. 차석자는 郵政省, 그 다음은 交通省…「케도르세」(外務省)를 지원한 사람은 30등 쯤에서 나타 났다. ▼수석·차석졸업자는 으레 憲法審議院이나 財務省을 따 놓고 있었다. 그러나 그해 수석자들은 『財務省만 프랑스를 키워가느냐』라며 「反抗」하고 나선 것이다. 그야 말로 「혁명적」인 사태를 빚어 놓았다. 프랑스의 전사회가 이들 反抗하는 젊은 세대의 氣槪에 찬양을 보냈음은 말할 것없다. 우리의「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찾아든 전공 희망「科」는 어디 어디이던가? ▼최근 명문대학의 유망「科」를 지원했다가 낙방, 응시자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낙방으로 자살한 젊은 학생은 이뿐이 아닌듯하다. 自殺까지에 이른 사연을 보면 딱한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딱한 사정은 누구에게나 있고보면, 여기에는 다른 측면도 있을법하다. 우리 사회풍조속에 꼭 大學을 가야하고, 대학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엘 가야하며, 최고자들이 쏠리는 科를 선택하려드는 경향, 그것도 자살사건을 유발케하는 한 遠因일 것이다. ▼自殺은 어떤 형태이든 心性중의 「攻擊性」이 외부로쏠리지않고 自己內部로향한결과 일어난다고 보는사람이 있다 (제임즈·쇼트). 요즘의 「낙방」을 잘 검토해보면 자기 실력의 부족만이 원인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현행 시험제도를 비롯해서 異常過剩경쟁현상, 수험자의 편향된 강박관념, 나아가서는 사회의 잘못된 後代育成策과 人間觀등, 自己이외의 요소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고보면 낙방했다해서 自身에게만 공격을 가할일은 아닌듯 하다. 그 보다 낙방이 人間의 生命이나 人生全部와 맞바꿔야 할만큼 결정적인것도 아니다. 낙방에서 오는 괴로움은 참아야 하고 더 나은 것을 쟁취하기 위한 분발의 계기로 삼도록함이 옳다. 에밀·뒤르켐은 「自殺論」에서 그 유형을 가리며 「아노미的自殺」이란 말을 썼다. 사회적 규범이 흐트러져 개인의 상황에 타당하지 않게 될때 자살이란 현상이 난다고 했다. ▼젊은 世代들의 氣槪를 일깨워야할 우리 사회의 규범이 혹시라도 아노미的인 상황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自省해 봄직하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 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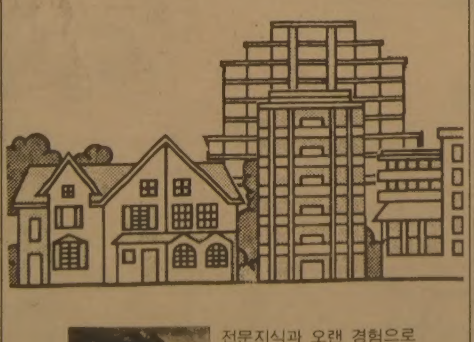
YAMAHA
건반악기 Porta Sound
Beginners sound great in minutes.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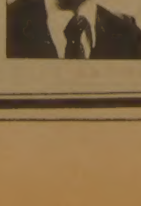
오사까 하우스
12 TEMPERANCE ST.
TEL: 368—2470 OPEN 7DAYS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
(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초밥, 국수류등)
월~목 11:00AM~10:30PM
금요일 11:00AM~11:00PM
토요일 5:00PM~11:00PM
일요일 5:00PM~10:00PM
Queen
Temperance S.
King
Bay
Yonge

맛 사 지

DIXIE HEALTH STUDIO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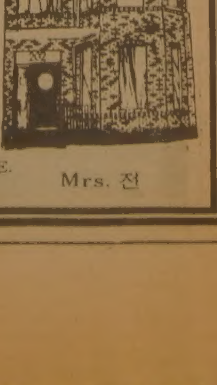
이대환 不動産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물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日 세계最長 海底터널 貫通

本州-北海道간 53.9㎞연결

19년만에 보조터널 뚫어 有事時 軍事보급로 활용

일본 혼슈(本州)와 홋까이도(北海道)를 잇는 세계최장의 해저터널인 세이깐(靑函)터널이 착공 19년만인 27일 관통됐다. 이번에 관통된 부분은 본터널의 보조터널이며 본터널은 85년에 완공되어 86년부터 열차가 이터널로 다닐 예정이다. 해저부분 23.3㎞, 육지 부분 30.6㎞등 총연장 53.9㎞인 세이깐터널은 터널로는 세계최장을 자랑한다.

영국과 프랑스간에 착공만 되었던 도버터널의 길이가 49.5㎞임을 생각할 때 그길이를 한층더 실감할수있다. 京釜고속도로 서울과 烏山간의 거리가 터널인셈이다.

수심 1백50m에다가 초속15m의 강풍이 몰아치는 쓰가루(津輕)해협과 악조건을 일본의 기술로 극복할수 있었다는점에서 일본은 이터널을 또한번 세계에 자랑하고 있다.

공사중에 82개국의 1천3백여 철도및 터널기술자가 공사현장을 견학했다. 그러나 일본은 소련에게만은 공사현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일단 유사시에 자위대가 이터널을 군사보급 루트로 활용할것이라는 군사목적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세이깐 터널 건설구상은 지난54년 쓰가루해협을 왕래하던 도야마루호가 풍랑으로 전복되어 1천9백55명이 몰살당한데서 비롯됐다.

64년5월 시공당시 철도심의회 회장이던 나까소네가 시굴단추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수상이되어 19년만에 관통발파단추를 눌러 그가 「억세게 재수좋은 사나이」임을 다시한번 보여준 셈이다.

공사중 1천40명이 사고로 죽었고 공사비는 모두 6천8백억엔(약2조5백억원)이 투입되었다.

세계최장이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 세이깐터널의 경제적효용은 당초예상했던것보다 그렇게 높지않을것 같다.

불황의 여파로 여객과 화물수송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비행기란 간편한 수송수단이 널리 보급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東京과 삿뽀로(札幌)간에 新幹線을 이용할 경우 13시간 50분이 걸리나 비행기로는 2시간이면족하다.

철도공단측은 30년간 분할지급할 공사대금 8백억엔과 영업적자 1백억엔등 모두 9백억엔의 연간적자가 예상되는 세이깐터널인수에 난색을 표하고있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國鐵도 터널을 인수할수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國鐵당국은 국가가 공사비를 전액부담하지 않는한 터널이 개통된다해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세이깐터널은 세계최장이라는 체면만을 높게세운채 주인을 찾아야할 형편이 돼버렸다.

【東京=宋李彬특파원】

한국·日本등 西太平洋 10개국 安保협력체 구축필요

홍콩紙、美 다우넌博士발언 인용報道

"蘇 軍事力증강 위협增大"

◇선술집에 불쑥나타난 레이건의 祝盃 보스턴을 방문한 레이건 美대통령이 26일 승용차편으로 부근의 한 소수 민족직업훈련원으로 가던중 시내의 한 선술집에 예고없이 들러 손님들과 함께 축배하자고 제의하고있다. 【보스턴27日UPI=聯】

【홍콩=聯】西太平洋의 모든 非共産國家간에는 더욱긴밀한 안보협력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하는것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 일본 타이 필리핀 대만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등 西太平洋10개자본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위협과 기타지역안보문제에 관해 모두 비슷한 관심을 갖고있다고 홍콩의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지가 26일 보도했다.

저널지는 美조지타운대학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太平洋연안연구실실장 로버트·다우넌박사의말을 인용, 지난10년동안 이루어진 소련의 대대적인 군사력증강과 아시아太平洋지역진출은 소련의 즉각적이고도 광범위한 지역목표와 관련, 이지역 전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고 강조했다.

西太平洋 10개국의 상호관심사에 관한 협력분야는 해상로의 공동방위나 ▲베트남의 동남아침공가능성 ▲소련해군및 육군의 증강배치 ▲韓半島의불안정 ▲中·蘇관계의 불확실성등과 같은 지역적위협에 대처하기위한 공동정책등이 있다.

西太平洋의 10개자본주의 국가들은 매우 중요한 해상로와 해협에 걸친 총1천1백60만㎢의 영토를 갖고있고 소련의 1조3천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1조8천억달러이상의 국민총생산(GNP)을 자랑하고있다.

또 그 병력을 전부 합하면 아시아·太平洋에 주둔한 소련병력을 훨씬 능가한다.

바웬사 26일再就業 출근은 아직 안돼

【바르샤바UPI·AP=聯】폴란드의 노조지도자 레흐·바웬사는 26일 종전의 직장인 그다니스크 레닌조선소에 재취업했으나 아직 출근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西方통신들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말했다.

지난해 말 폴란드 의회의 입법조치로 불법화된 자유노조의 前위원장 바웬사는 25일 조선소경영진의 부름을 받고 이날 조선소에 갔었다고 밝히면서 『1월17일자로 조선소노동자명단에 등록됐다는 조선소측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바웬사는 『조선소측이 17일부터 월급을 지불하겠다고 말했으나 출근은 차후 통보가 있을때까지 하지 말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美우주軍事계획 필요

하팅거사령관 "제4의 작전구역으로"

【워싱턴AP=聯】미국은 소련이 적극적으로 진출하고있는 우주에 대해 강력한 군사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있다고 신설된 美공군우주사령부의 제임즈·하팅거 사령관이 26일 밝혔다.

하팅거장군은 이날 오찬석상에서 연설을통해 지난해 9월1일 창설된 우주사령부는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우주사령부 창설은 실질적으로 군사적 억지력과 국제안정에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美국방성이 우주를 陸·海·空과 동일하게 우주도 작전구역에 포함됐음을 인식함에 따라 기구조직상 전략공군사령부와 동등한 우주사령부를 설치했으며 특히 소련의 우주군사력 강화가 주요한 설치이유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美의 對中共지원 蘇침략조래

美亞洲문제연구소

【워싱턴AP=聯】美國은 노후한 병기와 내부불화로 아시아지역에서 증강일로에 있는 소련의 군사력에 맞설수 없는 형편이라고 미국의 사설연구기관인 아시아문제연구소가 26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워싱턴소재 헤리티지 재단산하에 새로이 설치된 이 연구소는 이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공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려할경우 이는 소련으로하여금 中共을 공격하도록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蘇서 시험관젖소 誕生

未成熟난자를 추출해受精

【모스크바AP=聯】소련동물사육유전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젖소의난소에서 추출한 미성숙난자를 시험관에서 생육시켜 수송아지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했다고 소련공산당기관지프라우다가 26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레닌그라드근처 푸시킨에있는 동물사육유전연구소의 과학자들이 미성숙난자를 시험관에서 생장시키는 「독창적인 방법」을개발, 지난해봄에 실험에 착수하여 지난24일마침내페르베네츠(「첫출생」이란뜻)로명명된수송아지를 탄생시키는데「완전한 성공」을거두었다고말했다.

프라우다는 이번 시험송아지탄생은 「생물학 역사에 기록될 획기적인 일」이라고말하고 이번 실험성공으로 다른나라에서 시험관쥐·토끼및 양을 낳게하는데 사용된 방법이 뿔을가진 가축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프라우다의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젖소의 난소에서 초기성장단계에 있는 미성숙난자를 추출, 인공영양분이 공급되는 시험관에 넣어 성장시킨뒤 수정을 시켰더니24시간뒤에 난자가 분열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열과정을거친 수정란자를 나디에시다(희망이란뜻)로 명명된 젖소에주입한결과 마침내 시험관수송아지가 탄생됐다고 프라우다는 보도했다.

증권감독원장에 朴鳳煥원장留任

정부는 27일 朴鳳煥증권감독원장겸 증권관리위원회위원장을 오는2월5일자로 유임발령했다.

海外協기획단장에 河東善次官補기용

정부는 27일 신설되는 해외협력위원회기획단장(次官級)에 河東善경제기획원차관보를 기용, 임명하고 위원회 제1협력관에 孫明鉉씨(기획원본부)를 임명했다.

정부는 또 한국수출입은행장에 朴聖相전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장을 임명했다.

人事異動

國稅廳 ▲기획관리관 金錫厚(大邱지방국세청장) ▲直稅국장 趙中衡(세무공무원교육원장) ▲조사국장 秋敬錫(감사관) ▲中部지방국세청장 梁稚煥(직세국장) ▲大邱지방국세청장 徐泳兌(자료관리관) ▲釜山지방국세청장 張炳淳(조사국장) ▲徵稅심사국장 金容鎭(국세심판소심판관) ▲국세심판소심판관 吳赫柱(기술연구소장) ▲기술연구소장 曺源(국세심판소심판관) (2월1일字)

記者의 눈

다나까公判과 法

일본집권 自民黨의 최고실력자인 다나까·가꾸에이(田中角榮) 前수상에대한 서릿발같은 구형, 그것은 정치이전의法, 그리고 통치책임자의 權威를 지키는데 수반하는윤리가 어떤것인가를 실감케했다.

록히드사건에 관련된 금권정치로 도중하차한 다나까―그는 현직수상으로 구속된후 77년1월27일의 첫 공판때 『수상으로 재직할 때를 회고해보건대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러움이 없다』고 눈물을흘리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6년동안의 끈질긴심리끝에 1백89회의 공판을열어 그가 『항공기판매와 관련, 록히드社로부터 5억엔을 수뢰했음을 입증했고 수뢰죄로는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5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검사는 논고를 통해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수뢰로 행정을 그르친것은 공무원 일반의 기강을 문란시켰을 뿐만아니라 국민전체의 도의유지에 심각한 영향을미쳤고 일본의정치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논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 앉은 다나까씨는 정계에서 「暗장군」으로서의 위세는 간데없이 피고인으로 귀를 기울이다가 이따금 신음까지 하는 것이었다.

다나까공판에대해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것은 이사건이 일본의 총리대신으로 재직중의 범죄에 대해 재판하는 것으로는사상 처음이라는 점과 피고가 일본의 5대파벌중 가장큰 다나까軍團의 총수로서 일본정계에 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3權분立에 입각, 검찰이 萬難의 정치적압력을 배제한채 소신껏 검찰권을 행사했다는 바로그것이었다.

나까소네 정권을 탄생시킨 다나까는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장악할 法務相에 자신과 가까운 하다노(秦野)를 앉혔지만 하다노도 끝내 여론과 法질서를 외면할수는 없었다.

일반국민에게는 용서될수있는것도 정치가에게는 용서될수없는 경우가많다. 그반면에 일반백성에게는 용서할수없는것이 정치가에게는 허용되는 경우도있다. 이것은 정치가의 행정에대한 결과와 정치윤리와의 관계에서 파생된다.

1974년워터게이트사건으로 닉슨대통령이 정계에서 은퇴한것이나 76년다나까수상이 金脈사건으로 도중하차한것도 모두 法이전의 정치윤리 문제에서 비롯된것이었다.

이처럼 정치가에대한 책임추궁은 닉슨이나 다나까개인에대해 처벌하는데 그뜻이 있는것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직책이나 수상이라는 자리가 단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켜야한다는것을 국민에게 입증해야하기때문이다.

그래서 다나까의 5억엔수뢰사실을 실감나게 증언한 사람은 다름아닌 그의 비서관 에노모또(榎本)의 이혼녀 미에꼬(三惠子)여사였다. 미에꼬여사는『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또 진실을 밝히기위해 이자리에섰다』고 전제한뒤 前남편인 에노모또가 5억엔을 받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증언했다.

이 미에꼬여사의 증언이있은뒤 일본에서는 한때『이혼을 했지만 前남편을 궁지에 몰수있는 증언을 할수있느냐』는 의견과『진실을 지키기위해서는 그럴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맞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했다.

어쨌든26일의 다나까 前수상에대한 구형공판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위한 댓가가 얼마나 값비싼것인가를 보여주었고 法앞에는 누구에게도 평등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란것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東京=宋李彬특파원】

社說

유럽核 減縮과 東北亞

—「時限附」제네바協商을 注視한다

어쩌면 군비축소협상 20년을 청산하게될지도 모르는 중대한 흥정을 미국과 소련이 27일 시작했다. 이날 제네바에서는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협상, 그리고 빈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사이의 재래식무기감축협상이 재개됐다. 이어서 2월2일에는 미국과 소련의 전략무기감축협상이 재개된다.

부산하게 열리는 이들 일련의 협상은 과거어느때와도 달리 한손에 칼을 빼어든채, 또 한손으로 악수를하는 모습으로 시작되고있다. 다시말해서「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시작되는 회담이다.

잘 알려진것처럼 이번 군축협상의 핵심은 제네바에서 진행될 유럽배치 중거리 핵미사일 제한협상이다. 이협상은 나토가 오는 12월부터 새로운퍼싱Ⅱ 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인만큼 하나의「時限附」협상이다.

11월말까지 미국과 소련사이에 유럽배치 중거리 핵미사일협상이 이루어지지않는한 군축협상 20년은 새로운 군비확대경쟁시대로 넘어갈 것이 확실하다. 지루한 군축협상은 이제3월6일에 있을 서독 총선거에서 열띤 논쟁거리일것이고 오는 가을에 있을지 모를 영국의 총선거서도 시민들의 논쟁거리가 될것이다.

더구나 이번 중거리 핵미사일협상은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와도 관련되고있음이 분명해지고있어 우리로서도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수없다.

어제 제네바에서 1년만에 재개된 협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영의 선택」과 소련의「퍼싱Ⅱ·크루즈봉쇄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이 신형미사일배치계획취소의 조건으로 소련측 미사일폐기를 요구하고있는데 대해, 소련은 신형 SS20을 2백40기에서 1백62기로 줄일테니 5백72기의 퍼싱Ⅱ와 크루즈의 배치계획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핵심이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미국의 신형 퍼싱Ⅱ와 레이다망을 뚫고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크루즈·미사일의 장래에 있음을 알수있다.

그 장래는 오는 3월6일의 서독총선거에서 첫고비를 넘길것으로 보인다. 사회민주당의 포겔당수는 제네바협상에서 진전이 있는한 나토의 배치계획을 늦춰야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서독에서 기민당의 콜내각이 물러선다면 영국·이탈리아·벨기에·네덜란드에서도 반핵무드가 우세해질지도모른다는 것이 나토전략가들의 걱정이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 60%가 크루즈·미사일 배치에 반대하고있다한다.

대처 영국수상이「영의 선택」을강력하게 지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겐셔서독외상은「잠정적인 해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콜롬보 이탈리아외상도「단계적으로영의 선택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비치고있다.

니츠 미국대표가「영의 선택」을 고집하지않는다는 융통성있는 태도를밝히지도 협상이 현재의 선에서 어떤종류의 가교를 놓을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수있다. 아마도 1백8기의 퍼싱Ⅱ와 4백64기의 크루즈 배치계획을 줄이고, 소련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을 포함한 수만큼 중거리 미사일배치를 허용하는 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중거리 핵미사일협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해야된다.

한국과 일본사이의 외교적타결, 그리고 中曾根수상의 워싱턴발언에 때맞춰 소련의 그로미코는 SS20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옮기는 구상을 서독에서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한국일보 26일자 2면보도). 고도의 기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소련의 SS20은 유럽에서 삭감된다고해서 세계의 긴장이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소련은 이미 SS20 1백기를 아시아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중거리 미사일협상은 유럽만이 무대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다.

서방측의 핵전략이 자칫 소련의 꿈같은 선전에 넘어가 안으로부터 금이 가서 안되는것처럼, 우리로서는「누가 리고아웃」하는 흥정이 돼서도 안될 것임을 경계해야하겠다.

소비자값까지 내려야

—工産品가격 引下의 실속과 惠澤

物價안정을 위해서 각종工産品의工場出庫가격이 인하되고 있음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같은 가격인하는 반드시 소비자가격의 인하로 직결돼야 하리라고 보겠다.

관련상공부와업계에 의하면 올들어 설탕, 코피값등이 인하됐고 이어 요즘에는 화장비누와 합성세제의 출고가격이 평균 5、6%내지 16%까지 내렸고 대두유와 대두박·밀가루값도 떨어졌다한다. 또 라면·사료·면류지·조미료·소주·플래스틱·의약품·타이어값 등도 그인하 요인이 생겨서 멀지않아 값이 내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밖에 국제原油價下落說이 파다한가운데 LPG(액화가스)가격은 이미 떨어졌고 청량음료나 과자류도 그인하요인이 생긴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렇듯 가격인하를 몰고 오게된 배경을 살펴면 국제 원자재가의 하향내지 안정, 국내 금리인하와 생산성 향상, 경영합리화및 기술혁신등으로 생산原價가 낮아지고 품질개선과 생산 收率향상이 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정책에 의거, 불가피업계에서 품가자제가 주효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사유야 어떠하든간에 여태까지 오른는 것으로만 알았던 공산품가격이 비록 부분적으로나마 값이 내리고 또앞으로 더욱 내려지리라는 소식은 반가운 사실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農正物價를 염려해야할때인만큼 朗報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상 작년 이전까지 공산품 가격을 비롯한 모든物價는 해마다 또는 分期마다 그 정도의 차는 있을 망정 오르는게 常例였다. 따라서 값이 오를세 心理가 하나의 사회적통념으로 정착됐던것과 비교해본다면 세상 많이 달라지고있다는 느낌이 절실하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만한 경제적 因果관계가 있었음을 모르는 바아니다. 이를테면 전에는 거침없는 오일·쇼크로 石油값이 비싸지고 그밖에 모든국제원자재가격이 오름으로해서 에너지·코스트라든지 수입원자재값이 앙등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대내적으로는 방만한 통화관리정책등으로 인한 통화인플레가 야기되고 높은 금리부담, 낮은 생산성, 품질및收率의 低下로 말미암아 생산원가가 비싸지는 탓이기도 하였다.

그뿐더러 이에 편승한 獨寡占 가격횡포나 任意 가격놓기가 겹쳐서 出庫價는 멋대로 오르기만 하였고 보태서 생산업자와 유통업자가 결탁, 가격을 조작하는 상도의 타락사례까지 常例化 하다시피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앞에 말한대로 정부의 강력한 안정시책과 국제적인 원유및 원자재가격의 小康내지 下落상태, 그리고 국제금리 수준에서 오는 국내물가에의 波及效果등이 지금은본바와 같은「引下러시」를 몰고온것이다.

한데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引下가 總販이나 都賣단계에만 그치지 않고 어떻게 최종 소비자가격인 소매단계에까지 반영되도록하는데 있다. 상도의면에서 아직도 불건전한 부분이 없지않은 유통과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시책면과 행정적 지도감독에서 소홀이 없게끔 조치돼야할 것으로 본다.

동시에 일시적 引下에서 再引上으로의 逆轉현상 같은것이 일지 않도록 본질적인 안정시책이 지속돼야 한다. 만약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애써 내려진 공산품값의 마진(利益)은 소비자에게는 영영 돌아가지 않은채, 그렇지 않아도 지탄받는 일부 유통업자들만 이롭게 만들것이다. 이는 물가안정의 참된의미를 손상 시킴과 동시에 잘못하다간 국민들로하여금 다시 物價高에 시달리게 하기도 쉽다.

政局往來

◆『판에박힌 보고보다 산보고를』

全斗煥대통령은 27일 상오 상공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각부처의 해외주재원들은 주재국의 새기술을 소개하는 과학책자나 기술관계자료를 구입, 즉시 국내에 보내 우리기술향상에 활용될수 있도록 하는등 판에 박힌 보고보다 산보고를 해야한다』고 강조.

全대통령은 또 金東輝장관이 자동차기술향상을 위해 해외에서 기술자를 초빙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자제품、기계류등 각분야에 걸쳐 숙달된 전문기술자들을 많이 초빙해 우리기술을 향상시킬수 있는 촉진제가 되도록 하란』고 지시.

全대통령은 86아시아경기대회、88올림픽에 대비한 운동기구 국산화계획보고에 『운동기구생산업체는대부분 영세업자로 機資材가 낙후돼 있기때문에 금융이나 稅制지원을통해 우선 낙후된 기자재부터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린뒤 국산화를 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民正黨의 原點은民族에두고있어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은 27일 충남 洪城지구당(위원장 崔昌圭의원) 개편대회에서 『공장 한두개를 세워 지역주민에게 경제적이득을주는것도 중요하지만 방황하는 민족에게 올바른 방향의 정신적 터전을 마련해주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그는 이어 『그런뜻에서 民正黨은 원점을 민족에 두고있으며 우리가 민족을 터전으로 민주주의 構造物을 쌓아나갈때 日本을 능가할수있다』고 색다른 克日論을 전개했고 韓末의 巨儒 崔益鉉선생의 宗孫인 崔의원은 『이곳은 忠情의 1번지』라며 愛國心의 高揚을제창했다.

한편 大邱中·西區(韓炳采의원)와 경북達城(金鍾基의원)개편대회에참석한 權翊鉉사무총장은 民正黨은 국민을 속이지않고, 우롱하지않고, 군림하지않는 정당이 되도록 스스로 채찍질을 계속하겠다』며 『어느 선진국에서도 볼수없는 달력돌리기등 정치풍조의 폐습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다짐.

◆萬年 야당도시라는소리 안듣게

27일상오에 열린 木浦지구당(위원장 崔永喆·국회보사위원장) 개편대회에는 중앙당이 파견한 5개격려단중 丁來赫국회의장팀과 李鍾贊총무팀이 나란히 참석하여 氣勢. 丁의장은 이날대회에서 『지난 2년간의 짧은시간내에 정치、경제、사회등 각분야가 이만큼 안정을 이룩하는데는 특히 湖南人의 공이 컸다』면서 『이러한 안정을 바탕으로 先進祖國의 창조를 위해 함께 매진하자』고 역설했고 李총무는 『우리도 이제는 先進祖國을 창조할수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새시대건설에 同參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崔위원장은 『木浦는 제5공화국이 들어선후 더이상 萬年野黨도시라는 소리와 낙후된 도시라는 말을 듣지않아도 될정도로 크게 발전했지만 나는 내고장의 先進化를 위해 계속앞장서겠다』고 약속. 【木浦=盧鍾煥기자】

◆나의정치소신은 調和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7일서울永登浦지구(위원장 李元範의원)와 京畿城南지구(위원장 李龍培의원) 개편대회에참석, 자신이 光州 회견에서 밝힌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4大 전제조건」을 거듭 강조.

柳총재는 이날 「強과 柔」를 조화시키는 자신의 정치소신을 피력한뒤 『국회를 활성화하지 않고 언론을 제약하면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것』이라고 정부 여당의 자세전환을 강력히촉구.

또 孫世一 서울市黨위원장은 『국민의 가슴속에 우리를 불태우는 횃불이 되자』、韓光玉의원은 『우리헌정사의 비극은 힘에 의한 정권교체』、金炳午의원은 春香傳의 「燭淚落時 民淚落」을 援用하며 소리를 높였다.

또한 李元範의원은 『최근 民正黨이 民韓黨에 무차별 공격을 하는것을 보면 여·야가 善意의 경쟁관계인지 적대관계인지 헛갈린다』면서 『도대체 民正黨이 지은 농사는 무엇이고 농토는 어디에 있느냐』고 꼬집기도.

◆野의원 財産登錄실적 더욱低調

등록마감일을 불과 4일앞둔 27일 현재 국회의원들의 재산등록 실적이 전반적으로 低調한 가운데 野黨의원들의登錄率이 더욱미미한상태.

이날하오까지 立法府 대상자 2백75명중 38%에 달하는 1백6명만이 등록을 했는데 교섭단체별로는 民正黨이 1백52명중 88명으로 58%를 기록했을뿐 民韓黨은 81명중 8명(李泰九、黃山城、徐鍾烈、尹起大、洪思德、洪淳灼、沈憲燮、李載根의원)、국민당은 25명중 6명(姜棋東、金翰宣、曺旦泰、曺德鉉、李炳雨、金永光의원)、議政同友會는 17명중 4명(朴定洙、趙舜衡、盧泰完、李龍澤의원)이 등록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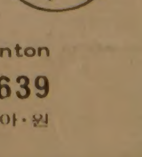
"민족위한 政黨" "先進조국창조" 등 民正고위간부들 곳곳서 熱唱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틀.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원

政街의 새이슈「地自制」
消極자세서 進一步

野圈의 早期실현촉구와 그 현황

「政治입장」이 큰 變數로

"民韓서代案제시땐 檢討용의" 時期-범위등 본격절충따를듯

지방자치제 실시문제가 새해들어 政街의 중요이슈로浮上하여 눈길을 모으고있다. 지난20년來의 宿題인 地自制는 70年代까지는 논의자체가 禁忌(?)로 되었으며 제5공화국 출범후에는 與野의 중요관심사인 政治議案의 하나로 꼽혀왔었다. 따라서 올들어 地自制논의의 浮上은 그동안 野黨의 早期실시촉구에 「時期尙早」로 맞서오던 民正黨의 李載灐대표위원이 적극자세를 보였다는데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李대표는 『民韓黨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地自制에 관한 구체적인 代案을 제시하면 공동으로 검토할 용의가있다』『民正黨은 이미 과거의 경험과 외국의 모델등을 토대로 우리의 실정에 맞는 地自制실시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지금까지 地自制에 관한 愼重, 소극적 태도에서 進一步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사실 地自制문제는 20여년동안 반복되는 정치 爭點이었지만 「반복의 의미」가 뜻하듯 『언젠가는 실시할문제』라는 대명제를 지닌 「논란의 연속」이었을 뿐이다. 지난 維新헌법이 『통일이 될때까지 잠정 留保한다』는 부정적 성격을 띠기도했지만 제5공화국 헌법은 『재정 자립도를 감안해 順次的으로실시한다』고 실시의 의지를명문규정으로 못박아놓고있다. 早期실시를 주장하는측은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에서 뿐만 아니라 이미 상당수준의 「국민적共感帶」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전 「서울시민의 생활 및 가치의식에대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서울시민의 73%가 地自制의 실시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응을반영한듯 民韓국민당등 野圈은 이미 지난81년 정기국회에서 『오는 87년 12월말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는것』을 골자로 한 地自制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한바있다.

民韓黨은 地自制 가정안과 地自制에 관한 임시조치법개정안을 통해 「인구비례에 의한 市·道의회의 구성」을주장했고, 국민당은 地自制개정안에서 「財政自立度가 확실한 지역부터 단계적실시」를 내세웠다.

또한 지난해12월 3黨총무회담에서는 국회內務委의 地自制 小委활동을 적극活용, 82년6월까지 중간결론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우리나라 地方自治史

	기 간	조 치	주 요 내 용
1期	49, 7, 4 ~	地自制法 제정, 1차개정	지방議會구성(52, 4, 5)。서울시장, 도지사는 임명제。市·邑·面長은 의회서 間選。의회에지방단체장 불신임권。선거권 21세。
2期	56, 2, 13 ~	地自制法 2차, 3차개정	市·邑·面長直選制。의회의 불신임권폐지。
3期	58, 12, 26 ~	地自制法 4차개정	市·邑·面長및洞·里長임명제。
4期	60, 11, 1 ~	地自制法 5차개정	서울시장, 도지사, 市·邑·面長, 里長 直選。의회 불신임권 부활。선거권20세로인하。부재자선거제도채용。내무부장관에게 서울시장, 도지사 징계요구권。
5期	61, 5, 16 ~	군사혁명위 布告4호 지방자치임시조치법제정 維新헌법공포	지방議會해산(維新헌법 부칙으로 통일까지구성보류)자치단체장임명제。邑·面은 郡의 보조기관으로, 서울市를 총리직속으로 승격。
	5共和國	지방의회구성明文	헌법부칙10條(財政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법률로 정하도록함)

各黨나름의 속사정은 있겠으나 쌍방 모두가 의견접근을위한 구체적 설득보다는자기중심의 「정치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한데서 그1차적 원인을 찾아야 될것같다. 때문에 李대표의 民韓黨을 향한 「구체적代案」의요구나 자체내의 「구체적검토」의언급, 그리고 야당의 적극적인 환영자세는 지금까지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제부터는 「구체적 결과」를 추출하기 위한 「本軌道의 진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할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때앞으로 與野는 지금껏쟁점의 초점이었던 地自制의▲실시시기와 ▲실시의 범위를 놓고 쌍방 의견差를 좁히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사실지금껏 「早期실시論」을 강조하는 야당의주장은 『헌법에서 地自制 실시를규정하고 있고, 실시의 전제조건이 되는 財政자립도의경우 서울 釜山 仁川등 대도시의 경우 이미 90%를넘어서고있으며, 他道의 경우도 지방재정 「교부금」제도를 개선하면가能하다』는 원론적 논리이다.

야당은 이와함께 5·16이래 중단해온 地自制가 中進國을 자처하는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수 없으며 國政지표인 민주주의의 토착화를위해서도 하루빨리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地自制가 실시해야만이 지방적 특수성과 창의성이 존중될수있고 획일적인 硬直性을 개선하게되며 이와함께 주민의 재정부담을 주민의 복지와 연결시켜야한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이에반해 「時機尙早論」의 입장인 民正黨측은 『헌법사항의 존중과 실시의 기본입장은 변함없지만 실시를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先行돼야 한다』는 논리이다.

民正黨측은 財政자립도도 아직은 취약한 상태이며 행정구역의 재조정등 여건조성이 선행돼야 하며, 국민의 의식구조나 정치풍토등 우리의 정치순화가 地自制를 수용할만큼 정착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이는 兩論이 내세우는 「명분의 背面」에는 보다 깊은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의 乖離」가 있음을엿볼수 있다.

金元基의원 (民韓)은 『제5공화국 헌법이 維新헌법과 다른것은 대통령 單任制, 국회의 국정 조사권, 地自制留保조항의 철폐』란 전제아래 『이러한 차이점을 무기로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획득했다면 한루속히 地自制를 실시할 정치적 의무가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반해 鄭男의원(民正)은 『地自制가 민주정치의 뿌리요 자치능력 배양의 요람이라는 측면을 앞세우기에앞서 뿌리를 내리고 배양될수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성급한 地自制 실시가 몰고올 폐단이나 부작용을최소화시킬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선행논리를 편친다.

또 孫世一(民韓)의원은 『과거 전쟁상태에서도 地自制를 실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趙炳奎의원(국민)은 『1인당국민소득 60달러 수준에서도 地自制를 했는데 이제는 2천달러를 내다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적극적의지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民正黨의 羅碩昊全炳宇의원등은 『分斷국가에서 자칫 國論분열이나 혼란을조래할 우려가 있는 과열의 정치풍토를 再生시켜서는 안된다』『민주주의의 기초훈련이 선행돼야한다』며 정치여건의 성숙등 「愼重論」의 입장이다.

물론 地自制실시에 따른이러한 여야의 異見은 地自制가 중단됐던 6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그 緣源을 찾는 견해가 없는것은아니다.

다시말해 民正黨측으로서는 地自制실시에 따른 「정치過剩현상」, 즉 중앙정치의 지방확산에 따른 정치의 예각화현상과 야당 지방조직의 활성화현상을 우려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리는 야당으로서는 地自制가 실시될 경우 下部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정치영역의 확대라는 등식이나올수가 있다.

이처럼 地自制문제를 두고與野는 『실시해야한다』는 大前提에는 異議가없고 다만 방법과 시기문제가 논난이되고있다.

우리는 지난52년 4월부터 약 8년간 地自制를 실시해오는동안 주민자치 운영이라는 장점과 함께 지나친 정치對決場化, 선거過熱로빚어진는 일부주민간의 違和感등 갖가지 부작용과문제점을 경험한바있다.

중단된지 20여년이지난 오늘에 있어 우리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치러야하며 더우기 先進조국의 창조라는 역사적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地自制실시논의는 더욱 현실감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50年代에비해 우리 국민의 자치능력과 민주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봄국회를 계기로 與野간의 地自制논의는 새로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될 무드가 조성될 것으로 보아 與野는 보다 경제적이고 우리 실정과 여건에 맞는 地自制실시방안을 진지하게 강구해야 할것이다.

地自制문제가 단순한 政治이슈의 성격을 벗어날때 「주민을위한 주민의 議會」구성은 더욱 빨라질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않다.

【李成俊기자】

마이카의 꿈 "성큼"
—2百만원짜리車개발 계획안팎

2기통 5~8백CC 4인승… 85년에 市販

자동차업계가 새로운 차종개발에 열을올리고 있는것과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도시 중산층용 소형승용차와 다목적농촌승용차 개발계획을 내놓아 마이카에의 꿈을 더욱 부풀게 하고있다.

상공부는 27일 全斗煥대통령에대한 올해 업무계획보고에서 85년까지 중산층보급용 소형승용차를 개발해 내겠다고 밝혔다. 상공부의구상은 현재의 포니Ⅱ나 맵시보다도 값싸고실용적인차를 보급해 보겠다는것이다. 현재 1천4백cc인 소형차대신 배기량은 5백~8백cc로 줄인 2기통으로 4인용의 아담한차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의 피아트 126이나, 日本도요다의 다이아스(6백50cc) 미쓰비시의 미니캡(6백cc)등을 연상하면 된다. 과거 국산 퍼블리카가 4기통 8백cc였고 오토바이가 2기통이니까 이를 감안하면 퍼블리카정도의 차에 배기량을 줄인것정도로 상상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도로가 좁은데다 주차설비도 부족한것을 감안하면 현실성있는 착안이라 할수있다.

로마의 좁은 골목길을누비는 피아트의 기민하고실용적인것에 에너지절약시대에 맞게 유류가 적게드는차를 개발해보잔는 뜻이다. 속력은 현재 포니Ⅱ등이 시간당 1백55㎞로설계된것에 비해 신형소형차는 시간당 1백㎞정도면된다는구상이다. 그러나 가장 염려를 두는것은 차값이다. 소득이 비교적 낮은 중산층들도 차를 살수있게 2백만원내외로 공급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포니Ⅱ의 차값을보면 생산가격 3백45만8천원에 특소세 부가세등 86만1천원을 합쳐 4백32만원에 출고된다. 그러나 차를 출고받은후 등록세 방위세등 각종세금과 공과금이 93만2천원이나 추가로 들기때문에 실제 포니Ⅱ값은 5백25만5천원이나 된다.

그런데 새로 개발해보겠다는 차는 공장출고 가격을 현재의 절반수준인 2백만원내외로 내리고 출고전특소세나 출고후 제세공과금등도 소형차에나 보급형인 점들을 감안해서 현재의절반수준으로 줄여보려는 생각이다.

차값이 2백만원 내외인데다 배기량이적어 유지비까지 큰부담이 안된다면 국내 마이카 보급에 크게 기여하지 않겠느냐는것이 정부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같은구상은 이미 승용차 제조업체별로 일차 개발가능성을 타진해본결과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는것이다. 따라서 상공부는 내년까지는 기본설계등을 거쳐 시제품을만들어 내놓고 85년에는시판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스케쥴을짜놓고있다.

상공부는 이같은 소형승용차 개발과함께 농촌에도 사람이 타고 짐을 운반하는데도 겸용해서 쓸수있는 다목적 2~3인승 트럭을 올해안에 내놓을예정이다. 현재 起亞산업이 시판하고 있는 봉고 1톤트럭이 5백만원대인데 비해 새로운 농촌보급형 다목적 자동차는 3백만원내외로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起亞산업에서 현재 개발중인데 빠르면 오는 가을께는 선보이게 된다.

작년10월말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보급대수는 총 62만7천대. 이가운데 승용차가 29만5천대로 집계되고있다. 우리나라는 소득수준에비해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이다. 80년기준으로 선진국인 美國이 1천명당5백42명꼴로 승용차를 갖고있고 日本이 2백3명, 西獨이 3백77명인데 비해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비슷한 臺灣이 20명, 멕시코가55명, 브라질이61명, 말레이지아가 45명이고 우리나라는 6·5명이 겨우 승용차를 갖고 있다.

우리보다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필리핀도 1천명당 11·3명, 泰國이 11·8명에 1대의 승용차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차량보급부진을 타개하고 내수기반에의한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를위해서도 국내차량보급을 대폭 확대시킬방침이다.

관계당국의 자동차 수요전망에 따르면 83년부터 86년까지 4년간 승용차는28만8천8백28대, 버스 2만5천4백66대, 화물자동차 18만7천5백91대등 도합 50만1천8백85대가 늘어나 86년말까지 전체 자동차보유대수는 1백16만1천6백97대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전반적인 경기침체때문에 국내자동차업계도 최근 3년간 고전을 면치못했으나 작년하반기부터 경기가 살아나고있다. 특히 現代자동차가 포니Ⅱ, 大宇자동차가 맵시등 신형차를 개발한데 따른 인기상승으로 수요증대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힘입어 現代는 다시 중형 국산모델과함께 前輪驅動의 소형차를 개발중이고 大宇도 GM의 월드카 전략에 따른신형 소형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崔相泰기자】

메아리

感天

한국일보의 제1회 主婦生活手記모집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李癸出할머니의「운명인줄 알았더니 서런이었습니다」는 큰 감동을 준다 (한국일보 1월26일자및 27일자에 게재). 70세란 인생을 되돌아보는 나이에 이른 할머니로서 겪어야했던 고통과 오뇌와 회한을, 그리고 그끝에 온 빼근한 환희를독자와함께 나누고있다.

주부생활수기모집의 뜻이 주부들의困苦나 榮光을 한개인의 체험으로 묻어두지말고 萬人의 체험이 되게하자는데 있는것이지만, 李할머니의 수기는 우리에게 同情과 憐憫만 불어일으키는것이 아니라 많은것을 가르친다. 백마디의설교보다도 한체험에서 우리는 더 많은것을 배운다. 인생은 자신을 위해서뿐아니라 남에게 교훈이 되기위해서도 살아가는 것이다. 한인생이 남에게 가르치는것이 있을때야말로 그인생은 살았다할만한 가치가 있는것이다. 李할머니의 체험담은 풍파에 저린 한한생의 목소리로 우리가슴을 두들긴다.

李할머니의 手記는 20세의 외아들이 앉은뱅이가 되면서부터 시작된 고난을 이겨내는 이야기다. 아들이 脊椎側彎症이란 병명으로 완치가능성이 없다는 의사의진단을 받았을때의 절망감. 여러병원을헤매던끝에 한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가던때의 환희. 치료비를대느라 소를팔고 전답을 팔고 자신은 쉰이 넘은 나이로 방직공장에 취직을 해야했던 괴로운 나날들. 병이 재발하자 아들이 수면제를 사모은다는 것을 알고 자기도수면제를 사러 약방을 돌아다니던 아픈 母情. 술로 화를 달래던 남편마저 위암으로 죽고 말았을때의 통곡. 그러나 李할머니는 절망하지 않는다. 앉은뱅이 아들과 함께 종이봉투를 만들어 상점에대면서부터 재기하여 결국은 아들을 시계수리학원에 보내 수석으로 졸업시키고 집과 가게도장만하고 전문대학까지나온 규수를 맞아 아들 결혼식을 올린다. 16년만에 앉은뱅이 걷혔다. 실로 앉은뱅이가 일어서듯이 李할머니의 무너졌던 가슴과 가정이 일어선 것이다.

적어도 책이 한권될만한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소설보다 더 기구한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어떤인생은 그대로 소설로 옮겨 놓으면 소설에서는 있을수 없는 엉뚱한 일들때문에 현실성이 적어져 작품으로서는 졸작이 된다.

인생은 그만큼 상상밖의 것이다. 우리 주위에 李할머니처럼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悲運과 逆境에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닐것이다. 사는데 지치고 죽는것은 겁나고 표류하는 조각배처럼 슬픈難破를 향해 물결치는대로 배를 띄우는사람들. 이들에게 李할머니의 용기는 큰위안이 될것이다.

우리는 至誠이면 感天이란말을 들어본지가 퍽오래다. 하늘이 至誠에 鈍感하다는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부터가 至誠을 다해놓고보지않는 버릇이 생겼다. 至誠보다는 요행과 운수를 더 믿는 풍조다. 우리는 한시도 손을 놓게하지않을 생각은 하지않고 빈손을 모아 저 기도만 열심히 하고있지않았던가. 한장 벽돌을 쌓기시작해야할때에 약은 재주를 피울 생각부터 하지않았던가. 至誠의 길은 너무 멀다는 생각에서 지름길을 찾는데 시간을 다버리지는 않았던가. 인생에는 비약이 없다. 하늘은 비약하는 자에게는 금방 닿지않는다. 성경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뿌리는 자만이 기쁨을 거둔다. 「하늘이 고칠수없는 슬픔은 지상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李할머니의 경우처럼 하늘이 感天할 至誠을 다 했을때다.

李할머니는 우리 사회의 큰 힘이다.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이런데서 나온다. 李할머니는 또 우리 사회의 심지같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한 사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金聖佑 <編輯委員>

海外토픽

스크린통해 新聞도
★美衛星통신망傳達社구상

향후2년내에 신문과 잡지를 통신위성을 이용, 독자개개인의 비디오 스크린이나 고속텔렉스에 직접 연결시키는 방식의 뉴스전달이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신문뉴스전달 체계는 컴퓨터를 이용, 정보전달수단을 혁신하려는 美위성통신망전달회사(SND)의 여러사업목표가운데 하나이다.

이 회사의 리처드·앤더슨 부회장은 『이같은 시스템이 기존 인쇄간행을 전달방법과 즉시 대체되려면 비용이 많이 들것이나 기업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득을 낼수있는 첫번째 방법은 광고회사와 인쇄소로부터광고원안을직접 신문에 연계시키는 것으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뉴욕=UPI】

◇손상된 英國신사체면… 英國상하수도 노동자들의파업으로 인해 食水難을 겪고있는 런던의 주민두사람이 26일 길거리의 파열된 수도관에서 물을받고있다。정부의 7·5%임금인상안을 거부 15%인상을 요구하면서 사흘째 접어든 이번 파업사태는 금주내로는 해결될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 【런던27日UPI합=聯合】

수입70% 本國送金
★比해외勤勞者 의무규정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근로자들은 오는 2월 1일부터 그들 수입의 50~70%를 본국으로 송금해야할것이라고 필리핀중앙은행이 25일 발표.

필리핀중앙은행은 이날 조치가 페르디난드·마르코스 대통령의 「강력한」지시에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만약 근로자들이 이 조치에 불응할 경우 여권갱신이 허가되지않을 뿐더러 현재의 일자리마저 잃게될 것이라고 경고.

필리핀정부가 이처럼 강제성을 띤 조치를 실시키로한것은 해마다 심화되고있는국제수지적자 (82년 적자액11억3천만달러)를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마닐라=UPI】

뉴스위크記者 被訴
★比소녀娼女보도 歪曲

필리핀의 10대소녀 2명은 이번주 그들을 매춘부로 보도한 미국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최근 기사와 관련, 2명의 필리핀주재 뉴스위크특파원을 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필리핀사법당국에 고소했다.

뉴스위크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린 이다·비에가스양 (16)과 아순시온·누에보양 (17)은 필리핀공보상이 마닐라시 치안책임자에게 그같은 보도에 대해 진상을 조사, 대책을강구하라고 촉구한데 이어 공동으로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고.

마닐라 신문보도에 따르면 『일정한 직업이 없는』이들 소녀는 2년전 자선기금모금에 사용될 것이라는 명목으로 사진을 찍고 문제의 특파원중 1명인 리처드·보키씨로부터 약77달러의 돈을 받았을뿐 매춘부가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다는것. 【마닐라=AP】

◇英, 포클랜드편입기념주화발행 英國조폐국이 25일 포클랜드群島의 영국령편입 1백50주년을 기념하기위해 발행한 주화。앞면에 엘리자베드 2세 여왕, 뒷면에는 1592년 포클랜드를 처음발견한 디자이어號의 모습이 들어간 이주화세트는 金貨, 銀貨, 니켈貨로 돼있는데 이것들은 각각 1천5백92달러, 46달러, 그리고 4·72달러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런던26日UPI합=聯合】

「行政구역」을 起訴
★美 고용등 人種差別에

미국법무성은 최근 주택공급과 고용기회에있어서 흑인을 차별한 시카고시교외의 시서로구를 기소。

미행정부가 주택고용 및고용기회의 인종차별을 이유로 지방행정구역을 기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시서로는지난66년에도 흑인들의 항의시위가 발생하는등 인종차별 구역으로 악명 높은곳。

레이건대통령 취임이래 법무성이 주택공급 차별문제로 개인을 두차례 기소한 일이 있으며 카터전대통령때는 주택공급과 교육차별을 이유로 한 행정구역을 기소한 바 있다. 【시카고=AP】

카르뎅 北京서선뵈
★5월 79년이후 세번째

파리의 유명패션디자이너 피에르 카르뎅이 오는 5월 북경에서 파리의 최신유행을 소개하는 패션쇼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중공의 영자일간 차이나·데일리지가 최근보도。

카르뎅씨의 패션쇼는 지난79년과 81년에이어 이번이 3번째라고.

자신의 일부제품을 중공에서 하청하도록 승인한바있는 카르뎅씨는 유명호텔들의 하나인 북경호텔에 부티크를개설, 운영하고 있는데 파리의 고급식당인 「막심」분점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北京=AP】

◇파리서 선보인 올봄·여름패션 프랑스의 디자이너 이브·생·로랑이 26일 파리에서선보인 올봄과 여름의 고급의상 매혹적인 시·트루 블라우스에 벨트를맨복장은스커트 【파리26일AP합=聯合】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돌잔치 *동창회 *결혼피로연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개업5주년 기념 봉사

3월말까지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개장 $4.00

영업시간: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 531-0277

廣開土王 碑文「조작說」 韓·日史學者 논쟁 再燃

한일고대사학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어있는「廣開土大王陵碑文」중「소위辛卯年記事」의 조작설을 놓고 최근 한일사학자들이 또다시 紙上논쟁을 벌이고있다。공방전을 벌이고있는 두학자는 臺灣대학유학중 장기간 광개토대왕능비문연구를한 李亨求교수(정신문화원)와 일본의 한일고대사 전문학자인 星野良作씨(일본法政大강사·제2고교敎論)。李교수는 지난81년12월18일 延世大國學연구원주최학술발표회에서 문제의 辛卯年기사중「倭」자와「來渡海」자가 일본참모본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李교수의 연구논문은 다시 일본교포신문인 통일일보에 13회연재(82년 1월8일~27일)됐는데 이를본 星野씨가 학술교양지廣場1월호에「李亨求씨의 新說에 접하여」란 주제로 李교수의 연구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李교수는 다시「星野선생의 비평에 답함」이란주제로 廣場2월호를 통해 반격을 가했다。두학자의 논쟁은 지금까지 辛卯年기사의 문맥, 어법, 고증에만 중점을 두었던 연구와는 달리 문제의 핵심에 깊이 들어가 과학적인 분석방법과 논증으로 맞서고있어 광개토대왕비문연구가 새로운차원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書體 분석결과「後」字를「倭」字로〃 〃의도적 變造 아니라「原傷」상태〃

광개토대왕능비는 4세기 말에서 5세기초 한반도및 만주화북지방까지 정벌하고 만주에 도읍을 정했던 先王의 업적을 기리기위해 長壽王이 세운것。

현재中共吉林省輯安縣通溝 國內城에 위치해있는 이능비는 세계최대의 금석문(높이 6·34m·화강암 자연석 4면)。

지금부터 1백년전인 1883년 日本참모본부의 對淸國스파이인 육군정보장교酒勾景信이 능비문의 雙鉤加墨本(비문에 종이를대고 글자를뜬후 여백에 먹칠한것)을 참모본부에 가져온것으로 알려져있다。

그후 비문전문이 세상에공개된것은 1889년6월(明治22년) 일본아시아협회기관지「會余錄」제5집에 酒勾景信의 雙鉤加墨本과 함께 日本참모본부편찬과장 橫井忠直의 釋文이 발표된후부터였다。

그뒤 90여년동안 韓·中·日학자들에의해 비문연구가 계속돼 2백여편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비문1면의 8행과 9행에 기재된 이른바「辛卯年記事」에 대한 해석이 대부분이었다。

문제의 辛卯年기사는「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倭以辛卯年來渡海破百殘□□新羅以爲臣民」(百殘(濟)과 新羅는 예로부터 屬民으로조공을 해왔다。그리하여 倭는 辛卯年(AD391)에바다를 건너와 百濟 新羅를 破하여 臣民으로 삼았다」는 부분。

이비문을 근거로 일본제국주의官學者들은 4세기께 일본 大和 정권의「한반도경영설」「任那日本府說」을 확립하고 征韓論의 1급史料로 삼아 한국침략의 합법화를시도했다。그러나 鄭寅普선생이 그때까지의 통설이었던 신묘년기사에 반론을 제기, 회의를 품기시작했고 1959년 일본인 水谷悌二郞씨가 비문變相이 있음을 지적했다。이어 북한사학자 朴時亨 金錫亨, 일본의 中塚明, 佐伯有淸등이 광개토대왕비문연구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지난72년재일사학자 李進熙씨가 비문조작설를 처음으로 폭로했고 千寬宇씨등이 동조하는 발표를 했다。81년12월 李亨求교수는「倭」자「來渡海」자의 조작을 증명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李교수의 첫발표

李교수는 81년12월 발표된 辛卯年기사의「倭作倭字考」란 논문을통해 辛卯年기사중「後」자가 倭자로,「不貢因」을「來渡海」로 변조하여 倭가 바다를 건너와 신라와 백제를 격파한 것처럼 한일고대사를 날조 했다고 지적했다。李교수는 臺灣에 유학중일본水谷悌二郞씨소장탁본과 臺北중앙연구원소장탁본을 정밀분석한 결과 서법 글자의 짜임새들이 다르게변조된 사실을 밝혀냈다。또 신묘년기사중 공백자인 두자는「倭寇」자가 삭제된것이라고 주장했다。

李교수에 의하면 酒勾景信의 雙鉤加墨本의 비면제4면중 제일행에「…制令守墓□□後」와 같이「後」자가 남아있었으나 9년뒤 일본官學者 三宅米吉이 비문을 재편성해놓은 釋文에는 그「後」자가 없어져 강한 의혹을 품게돼 조사에 착수하게됐다는것。李교수는 이같은 의문점을 규명하기위해 문제의「後」자와 비문전후에 나오는 後자6개를 비교해본결과 서체가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다시 문제의「後」자의 출처를 규명하기위해 문맥과 서체를 통해 들어갈만한 곳을 찾아보다가신묘년기사의「倭」자에 주목하게됐다。신묘년의「倭」자는 비문에 나타난 다른 7개의 倭자와 서체、글자의 짜임새등을 분석한결과 완연히 다르고「後」자를 변조한것이 증명됐다。

스파이酒勾가 변조할 의도로「後」자를 쌍구해와 合각과정을 거쳐「倭」자로 변조한후 비문전체를 쌍구가 묵본을 해왔으나 비문紙片을재편성하면서 실수로 맨끝에남겨놓은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李교수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신묘년기사는「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而後以辛卯年不貢因破百殘倭寇新羅以爲臣民」백제와 신라는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바쳐왔는데 그후 신묘년부터 백제 왜구 신라를 격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고 복원돼야한다고 주장했다。

◇星野良作씨비판

星野씨는 李교수의 논문을「新허구설」「新바꿔치기설」로 표현했다。그는 80여매의 원고논문중 4분의3을 李교수의 논지에 논평을 가한후 크게 두가지의문점을 제기하며 비판을 가했다。李교수가 신묘년기사중「倭」자를 부정하게된 핵심적인 동기가 된 비문맨끝자인「後」자의 출현및 삭제문제와 신묘년기사중「倭寇」자를 삭제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우선「後」자문제에 대해「倭」자로 고치기위해 미리떠온「後」자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비문전문의 쌍구가묵본을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後자를 잔류시켰다는李교수의 주장에 두가지의문을 제기했다。변조한 대상문자로 後、不貢因、倭寇자를 모두 먼저 쌍구했을 것인데、合각과정을 거쳐 변조한후 다시 전문쌍구해와 지편을 재편성하면서 왜 유독「後」자만을 잔류시켜 놓았겠느냐는것。星野씨는 이이유를들면서 李교수의 주장에『부자연스런 느낌이든다』고 지적했다。또 하나는 酒勾本은 제1면이모두30매의 지편(紙片)에 쌍구되어 있고 문제의 신묘년기사부분도 12자를 한지편에뜬 것으로 나타나 있다。따라서 後자만을 따로 떼어낼수도없었을것이란는것。酒勾景信이 만주에서 쌍구가묵본을 가져온뒤 일본참모본부가『사계의 학지들을 총동원하여 해독작업을 하던중 돌연 삭제됐다』는 李교수의 지적에대해『오해하기 쉬운 문장』이라면서 삭제된 과정을 설명했다。管政友 鄭珂通世등의 학자들이 비문연구중 지편배열이 잘못돼 재편성을 시도하다三宅米吉이「後」자를 삭제하고 마침내 석문을 완성시켰다는것이다。이같이 장기간 많은 연구결과를 통해 비문을 완성시킨것이므로 의도적인 삭제가 아닐뿐아니라 참모본부의 조작설로 보는 견해에 의문을 갖는다고 星野씨는 주장했다。그러나 어쨌든 문제의「後」자가 삭제된것은 사실이라고 星野씨는 시인했다。

두번째로「破百殘□□新羅」의 두공백자는「倭寇」를 삭제한것으로 보인다는 李亨求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星野씨는 末松保和(東京大 조선사)의 비문原傷說을 내세워 부당성을 지적했다。비문의 이부분이 원래 상해있어 아무글자도 새기지 않았을것이라는것。末松교수는 최근「好太王碑와 나」(78년)「好太王碑文연구의 흐름」(81년)이란 연구논문에서 비문의 1면과 2면모서리사이에 문자의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과함께 문제의 原傷때문에 다못쓴 글자를 모서리에추가로 썼을것이라고 추정했다。

결국 末松교수는 비문의 原傷때문에「破百殘新羅」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李교수의 반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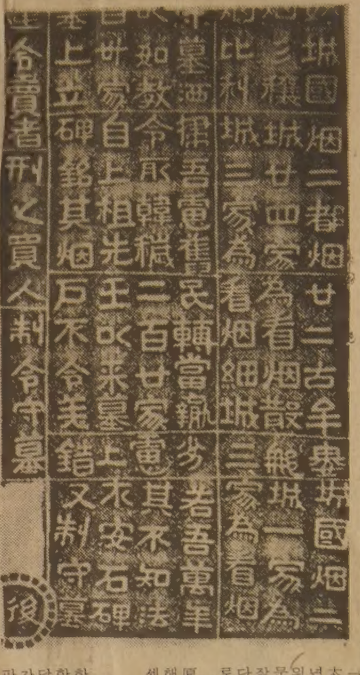
李교수는「後」자를 변조하고 잔류시켜놓았다고 주장한 그의학설을 星野씨가 부당하다고 비판한데대해 여러가지로 반론을 제기했다。스파이인 酒勾景信이 비문내용에대해 참모본부와 협의를 거쳐 [illegible]의 설계를 했을것이다。즉 신묘년기사의 後、不貢因、來渡海자에 초점을 맞추고 雙鉤해온후 習作과정을 통해 변조할수있다는확신을 얻은 후에 原碑文을 改竄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倭寇」자는 쌍구가묵본의 과정을 거칠 필요도없이 삭제돼버렸을 것이다。이렇게 일본에 불리한 글자들을 모두 조작변조한후에비문전문을 쌍구가묵본해왔던것같다。비문의 12자내지 16자씩 한紙片에 쌍구해온후참모본부가 수많은 지편을 재편성해 비문을 완성시키면서 수많은 시일을거치는동안 혼란을 일으켜 지편이 서로뒤바뀌었을것이다。

이과정에서 連字로된「不貢因」자는 쉽게 알아보고 소각시켰으나 單字인「後」자는 실수로 비문 맨끝에 남겨놓았을 것이다。그증거는 앞서 발표한 비문중 6개의 後자와 대조해봐도 동일한자체가발견되지 않았음을 통해 알수있다고 반론을제기했다。

또『사계의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해독작업을 거친후後자를 삭제했다』는 부분의설명은 酒勾景信 橫井忠直등 일본참모본부의 군인 군속을 비롯하여 河田 丸山 井上및 그후의 管政友·鄭珂通世 三宅米吉등을 포함해서「사계의 학자」라는 뜻이다。이들이 모두 일본제국주의 官學者들이었고 이처럼 완전한釋文이 나오기까지 장기간많은 사람의 손을 거친것이다。또한 原碑文의 原傷說의 근거로 末松교수의 1면과 2면 모서리(隅角線上)에 문자가 있었다는주장도불합리하다。

臺灣유학중 대만중앙연구원의 탁본과「朝鮮古蹟圖譜」를 면밀히 분석한결과 문자의 흔적이나 문자가 들어갈 여유가 없다。또 원비문은 원래「破百殘□□斤羅」로 되어있어 斤자를 新자로 보아오고있다。비문이 원상됐다면 斤자도 한자뒤로 물려 羅자위치에 새겨넣어야 했을것이다。그리고 斤자주위에 여러자가 缺字되어있는데 모두「…城」으로 문맥이 안통하고있다。이로 미루어 비문이 원래 상해있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倭寇」자를 쪼아낸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斜線으로 커다란 균열을 만들어놓은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李교수는 밝혔다。【林承茂기자】



◇酒勾雙鉤加墨本의 비면 4면의 맨끝에 있는「後」자(점선)。[illegible] 삭제됐고 李교수는 이「後」자가「倭」자로 변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亨求교수

아메리칸풋볼의 神話的 감독

빈스·롬바르디

下位 패커즈를 세계最強에 지금도 롬바르디盃로 追慕

歡呼뒤로 사라진 스포츠스타들★

스포츠의 세계는 냉혹하다。한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슈퍼스타가 한순간에 팬들의 관심권밖으로 밀려나 기억에서 사라져버린다。강한자만이 살아남는 스포츠무대。지난날의 각종목 슈퍼스타들을 시리즈로 살펴본다。【편집자註】

◇그린베이·패커즈의 헤드코치 롬바르디가 제1회 슈퍼보울서 우승한뒤 흰이빨을 드러내고 특유의 웃음을 웃고있다。

빈센트·토머스·롬바르디ㅣ美프로풋볼사상 가장위대한 감독이면서 또한 가장 많은 사랑을받는 인물이다。

美國人들은 지난70년 암으로 세상을떠난 롬바르디를추모하기위해 매해 최강의 프로풋볼팀에게 롬바르디컵을 수여한다。슈퍼보울우승팀에게 수여되는 롬바르디컵은축구의 최고영예인 FIFA컵에 비유된다。

31일 패사디나로즈 보울구장에서 벌어지는 금년도 슈퍼 보울(마이애미·돌핀스對워싱턴·레드스킨즈) 우승팀은 이롬바르디컵을 차지하게된다。빈스·롬바르디로 애칭되는 그가 프로풋볼팀 감독으로 활약한 시기는 12년밖에 되지않지만 그기간동안 롬바르디는 승리의 대명사로 알려질 정도로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

롬바르디가 프로팀 감독에 첫 취임한것은 59년 그린베이·패커즈였다。

패커즈는 롬바르디가 오기전 10년간 한번도 지역 타이틀로 획득하지 못했으며 58년에는 1승10패1무승부의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패커즈의 본거지(프랜차이즈) 그린베이에는 당시 7만 인구에 1백94개의 술집이 있었으나 파리만날렸다。고향팀의 연전연패로 그린베이 주민들은 술한잔 마실 기분조차 들지않았다。

그러나 롬바르디가 패커즈를 맡은후 양상은 달라졌다。시즌동안 술집에서 샴페인 터뜨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롬바르디는 감독취임 첫해에 7승5패를 기록, 중상위권으로 팀을 이끌어 올렸다。감독취임 두번째 해인 60년에 패커즈는 NFC(당시는NFL)의 챔피언팀으로 올라섰다。약체팀 패커즈는 상대팀에게「녹색의 공포」로 변했다。

61~67년동안 패커즈는 5번씩이나 NFC 챔피언팀이 됐으며 66년부터 시작된 NFC챔피언팀-AFC챔피언팀간의 세계선수권대회(69년부터 슈퍼보울로 명칭변경)서는 2년 연속 우승,프로풋볼 최강팀으로 올라섰다。

세계선수권 2연승후인 68년 롬바르디는 고혈압으로감독직을 은퇴했다。그러나 풋볼계는 그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으며 그 자신도 그라운드에 나서고싶어 69년 워싱턴 레드스킨즈와 계약했다。

당시로는 프로스포츠 종사자중 최고액수인 10만달러의 연봉외에 구단 부회장·구단 수익금중 5%를 배당받는조건으로 레드스킨즈 감독에취임했다。

레드스킨즈는 68년까지에는 이길때보다 질때가 많았으나 롬바르디취임 첫해에 7승5패2무를 기록, 레드스킨즈를 강팀으로 만들토대를 마련했다。그러나 이듬해 롬바르디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롬바르디와 같이 생활했던 그린베이·패커즈의 선수들은 스승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제리·크래머선수는『그는 잔인하고 친절했다。거칠면서 신사이기도했던 신비스런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헨리·조단은 이렇게말했다。『그는 공정했다。누구나 똑같이 대해주었다。흡사 개를 다루듯이。우리는그를 증오하고 때로는 사랑했지만 항상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롬바르디의 명령은 선수들에게 절대적이었다。롬바르디가 앉으라고 말할때그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앉아야했다。1m밖에 의자가 있더라도 의자를 포기한채맨바닥에 앉아야했다。대신 롬바르디는 그의 말대로만 좇는다면 그것에 상당한 수확을 보장한 확고한 인물이었다。

『경기에서 피를 부리면 인생도 너에게 피를 부린다』『승리가 모든것이 아니다。승리는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롬바르디가 선수들에게 항상 들려준 말이다。

1913년생인 롬바르디는 포드햄大의 가장 작은 가드였다。

172㎝·77㎏으로 작은 체구의 선수들이 많은 백에도 못미쳤다。그럼에도 롬바르디는 포드햄大의 라인맨중의 한멤버로 맹활약했다。

대학 동창들은『그는 1백20㎏의선수와 맞먹는 태클을 구사했다』고 회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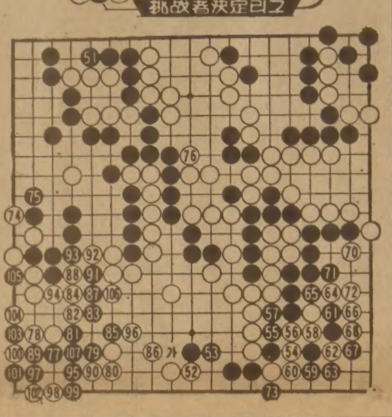
롬바르디는 학업성적도 우수했다。포드햄大를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세실리아고교에 부코치로 들어갔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이름은 롬바르디컵으로 영원히 남아있다。【金仁奎기자】

제14기 名人战 挑战者決定리그

第8局第10譜 151~207 (각5시간·덤5집반)

白 (6段) 徐 能 旭〈1敗〉
黑 (7段) 徐 奉 洙〈1勝〉



黑51까지로 白6점을 뜯긴것은 徐6단도 각오한바이지만 막상 당하고 보니 말할수없이 커서 이것으로 집차는 더욱 벌어졌다。

徐6단은 절망감을 뿌리치며 끝까지 버티려한다。고개를 푹숙인 때문에 표정은 알수없으나 잔뜩 웅크린몸에서 처절한 투지를 느낄수 있었다。

우선 白52를 선수하고 54。진작부터 노리던 곳이다。아직 1시간남짓 밖에 소비하지않았던 양기사는 예서부터 생각을 거듭하며 黑73까지 거의 1시간반。이정도면 보통의진도지만 이바둑에서는 시간을 가장많이 들인 대목이었다。

최후의 대파란

[illegible]8단은 黑73까지를 최선이라며『수순중 黑59가 호착이고 白60은 강수。이수로 61은 黑60이면 실전보다 불리하다。결국 白은 선수로 黑집을 깬 만큼 만족이다』하고 해설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대세를 역전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고전。그러나 徐7단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白76으로 중앙을 차지했다。이 수론 94자리를 막아 좌하귀를 확보하는 편이 더 크다는 중론인데 徐6단은 그런줄 알면서 黑이 처들어오면 최후 일전을 벌이려 한 것이다。

과연 黑77。이렇게까지 안하고 점잖이 黑82 혹은 黑「가」쪽에서 꽉내기 해도 넉넉한데 그러나 당장 눈에 띄는 수를 그대로 넘길수 없다는듯, 黑107까지로 어마어마한 패를 만들었다。69…62이음。【一見】

良心의 직면

길 ◇韓景職◇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가르치실때에 한번은 당시 지도자로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젊은 여자를 무리들 앞에 세워놓고 질문하기를『이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읍니다。모세는 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읍니까』물론 이 질문 가운데는 예수를 책잡으려는 간계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곧 대답하지 아니 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무슨 글자를 쓰고 계셨다。그들은 속히 대답하라고 재촉하였다。그때에 예수는 일어나 조용한 음성으로『너희 중에 죄없는자가 먼저 돌로 치라』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시고 계셨다。

얼마있다가 예수께서 다시 얼굴을 들어보니 그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가고 오직 그 젊은 여자하나만 홀로 서 있더라。예수께서 그 여자에게『너를 고소하던 그들이어디있느냐、너를 정죄하는자가 없느냐、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말씀하시고 보내었다고 한다。조금전까지만해도 그 여자를 정죄하던 이들이 왜 슬며시 그 자리를 떠났는가。그 이유는 분명하다。조금전까지는 그 여자의 죄만 보고 자기 죄는 보지않았다。실로 귀한 것은 양심의 직면이다。우리가 항상 양심의 직면아래 살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張吉山 〈1651〉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11)

이경순은 중길의 말에 별로 놀라지 않았다。자기 자신이 이미 그러한 경로로 패가하였던 처지였기 때문이었고、검계 일당과의 교유에의하여 산지니와 같은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세상을 등지게 되었던가도 잘알았던 것이다。

『왜、죽였나?』

『죽일만하여 죽였수』

영길은 두툼한 입술의 끝대로 빌빌 말투가 이어지질 않았다。그대신 중길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한양서 우리 상주게 얘기가 노비문간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지요。지금도 그렇답니다。이 사람이 진작부터 우리 얘기를 듣고 담에 듣기를 원하였지만 뜻이 닿질 않았읍니다。이 사람은 같은 데에 있는 수노를 때려 죽였답니다。같은 처지에 있는 놈이 수노라고하며 무슨 큰벼슬이나 따낸듯이 다른 행랑 것들에게 칭찬이 심하였던보양이지요』

『식구는 없었는가?』

『열살에 팔뿔이 흩어졌으니, 어디서 사는지두 모릅니다』

다시 중길이가 말하였다。

『영길이는 전에 있던 주인 댁에서 아침 저녁으로 행차를 배행(陪行)하여 검을 배웠답니다。환도를 아주 잘씁니다』

『좋은 식구를 얻었구먼』

『저하고는 이름도 그럴듯하여 참말 죽은 아우가 살아온 것이나 진배없읍니다』

밖이 왁자지껄하더니 삽짝안으로 회색 장삼 걸친 여환이 들어섰고, 그 뒤로는 무구와 옷보따리를 짊어진 김승운과 무당 계화가 들어섰다。또한 황회도 젊은 아낙과 동행이었다。이경순이 먼저 여환에게 합장을 하며 인사하였다。

『이거 지척 지간에 찾아가 뵙는다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도장 어른은 우리 양주 미륵도의 사천왕이시니 관문을 지키고 계신 셈이지요』

하고나서 묘옥에게도 합장하였고 묘옥은 효조를 띠며 반가와 하였다。

『제가 스님이 뵙구싶어 이렇게 큰 재를 올리자구 졸랐어요』

『고서방은 안오구 어쩌자네 혼자 오는가?』

이경순이 황회에게 말을던지니 그는 딴청을 하였다。

『참、이거 우리 내자올시다。선님께는 긴 발을 못하구 그냥 작수선례 하였수』

마당 위라 그냥 다소곳이 머리 숙여 보이는데、또래는 묘옥이만이나 하였다。얼굴이 가무잡잡하고 오종종한데 눈매가 길고 가는것이 성깔깨나 있어 보였다。

문산포에서는 제법 내노라하는 여자인 이경순이네 안마당에 어깨가 서로 부딪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이다。원래의 뜻은 장쇠 어미의 발상에 있었으나 기실은 양주 어름에 사는 이들끼리 모여서 술잔이라도 나누자는데 있으니 초상 기분은 제대로 나질 않았다。

하여튼 포구에 사는 이들까지 모여들어 삼 사 십여명이 마루 위와 마당에 차일 펼치고 멍석 깔고 둘러 앉았다。때는 초여름이라 모기불로 쑥태우는 냄새 가득차고 곳곳마다 관솔 홰불이 밝혀졌다。먼저 장쇠를 상주로 하여 제사를 올린 뒤에 고인의 넋을 저승으로 보내 드리는 풀이가 나오는 순서였다。만신 계화가 홍철릭에 고깔 쓰고 방울 부채 들고나와 길닦음을 하는데, 황회의 처라는 젊은 무녀가 징을 잡고, 김승운이 장고 잡고, 묘옥은 소복 차림으로 상주 뒤에 가서 서있었다。

演芸話題

〃破鏡위기說은 헛소문〃

『우리 부부의 애정생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읍니다』

80년9월이후 심심찮게 불화설이 나돌았던 崔白虎(33) 金慈玉(32) 커플。최근 다시 파경위기설이나돌자 이들부부는『전혀 근거없는 헛소문이지만 주위의 눈총이 따가와 신경이 쓰인다』고 말했다。

『살면서 한두번 싸우지 않은 부부가 몇이나 됩니까? 간혹의견차이로 부부싸움을 한것이 불화로까지 번진것 같습니다』

崔白虎는 가수로서 활동이 부진한 반면 金慈玉이 라디오와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등 부부간의활동불균형이 불화설을 만들어낸것 같다고 말했다。

어디까지나 金慈玉의 활동은 부부의 의견일치에서 온것이라는 설명。또 金慈玉의 TV출연이 떠도는소문처럼 생활비마련을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항변했다。

『결혼 3년이 되도록아기가 없어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고 또 친정아버지(註 시인 金相華) 병간호로 지쳐 며칠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는 부부싸움 후유증으로 보고 있어 속이 상한다는게 金慈玉의 말。

金慈玉은 부유한 것보다는 崔白虎가 가수로서 인기정상에 선는게 꿈이라며 뒷받침을 아끼지않겠다고 다짐했다。崔白虎는 최근 藝一에 전속,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앙드레金 문화훈장 伊에서 나이트爵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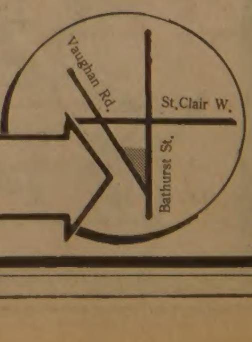
패션디자이너 앙드레金씨(사진)가 [illegible] 이탈리아와 한국의 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탈리아정부로부터 나이트작위의 문화훈장을 받았다。훈장은 이탈리아 정부를 대신하여 주한 이탈리아대사인 마르티노씨가 구랍 31일 전달했다。

한국일보

MODERN FURNITURE
ecosys
확장이전

ㅁ이전일시 : '83년2월1일(화)
ㅁ리 셉 션 : '83년2월13일(일)
〈구정〉오후5시~9시

대표 김 만 구 (B) 657—1785
1440 Bathurst St.
21VAUGHAN RD. (우편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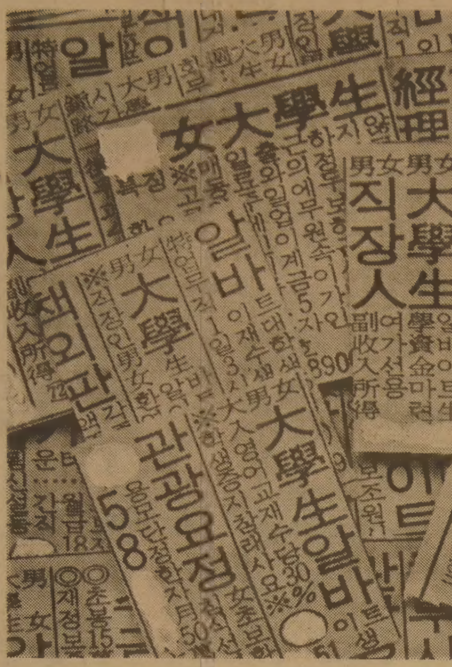
女大生 아르바이트 「이상한 職業」많다

호스티스·다방레지·골프캐디등

"學費위해"대부분 父母몰래

「아르바이트 女大生」들의취업경향이 심상치가 않다. 상당수의 女大生들이 맥주홀살롱의 호스티스를 마다하지않고있고 다방레지, 골프장캐디등 유별난직종에도 서슴없이 진출한다. 전에도배지를단 가짜女大生의 유흥업소진출소문이 없었던것도 아니지만요즘 이들업소에 나가는 진짜女大生의수가 급증하고 있다는것이다.

교육계인사들은 이들업소에 취업하는 경우 대부분이 부모를 속이고있으며 씀씀이가 커 타락하기쉽다 가급적이면회사의 시간제취업등 건전한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것이라고 충고한다. 또 일부인사들은 퇴폐풍조에 물들어 탈선하는 예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新聞광고 "유혹" 여대생의 술집아르바이트가 최근들어 부쩍 늘었다. 이같은 풍조는 과외금지조치 이후일자리가 적어지고「여대생」을상술로 이용하려는 유흥업소가 점차 늘어나기때문에 생기고 있는것이다.

팁神經… 씀씀이 헤퍼지고 男性 혐오도

그러나女大生아르바이트는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건전화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삼봉등 야간유흥업소에서는 겨울방학이 시작될무렵인 지난해 12월초부터 女大生들을 공개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다.

서울中區武橋洞의 술집W는「여대생아르바이트」란신문광고를 내고 여대생10여명을 채용했는데 고용조건은 다른업소와 마찬가지로 고정월급제가 아닌 팁제였다.

이때문에 채용된 여대생들은 업소의 규칙에따라 손님테이블에 앉는것이지만 그날그날의「벌이」인 팁을위해 하는수없이 손님을즐겁게해「웃을수밖에없다」는것.

지난 12월초부터 이곳서일해온 시내모대학 교육과 4학년 金모양(23)은「학비조달을위해 하는수없이 신문광고를보고 취업했으나 자연히 팁에 신경을쓰게돼 내자신이 타락하지않나하는 의문을 가질때가 많다」고 말하고「하오4시부터 11시까지 일을하는데 팁만으로 한달에 30여만원쯤 벌이가된다」고했다.

한편「돈이 풍족히 생기니 소비만증가되고 매월 고정으로수입이 생기는것도 아니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고급의상등 낭비풍조만 몸에배게돼 술집에 취업한것이 오히려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鍾路區仁寺洞 I술집에 나가는 具모양(24·K전문대2년)은 술집방면의 아르바이트계에선 고참으로 지금은 자기자신이 학생이라고 느끼지 못할만큼「타락했다」고 믿고있다.

具양은 처음엔 등록금을마련하기위해 武橋洞P술집에 바텐더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4년째가 됐다는것.

具양은『처음엔 수줍고 부끄러워 말도 못했으나 며칠이 지나니 자신도 생기고 술도 한두잔 먹다보니 지금은 맥주 3병 정도의 주량이 됐다』고 말했다.

鍾路區仁寺洞의 요정에서 호스티스로있는 金모양(25)은 처음에 아르바이트로 경양식집에 나가 월15만원정도를 받았는데 팁이월급보다많아 아예다니던 모신학대학을 중퇴했는데 金양은『남자들이 모두 시시해보이고 이제정상적인결혼도 틀린것같다』고말했다.

金양에의하면 지난해부터 여대생 호스티스가 갑자기늘어나 仁寺洞등의 고급요정에는 상당수의 여대생이 호스티스로 일하고있는데 여대생들은 손님들로부터 인기가많아 업소마다 손님유치를위해 경쟁적으로 여대생확보에 혈안이 돼있으며 채용할때는 신분증제시와 학교확인의 절차를 밟는게 보통이라는것.

여대생호스티스가 가장 많는곳은 고급 룸 살롱이 몰려있는 梨泰院과 永東일대. 이곳의 어떤 술집은 아예 손님들에게 여대생 호스티스들의 학생신분증을 보여준뒤 술자리에 앉히고있다.

접객업소중에서 다방도 요즈음 여대생들의 새로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등장하고 있다.

서대문의 J빌딩 지하S다방은 여대생레지를쓰는 대표적인 업소.

이곳에 레지로 근무하는여대생들은 명문여대E, S大등의 재학생 10여명인데 하루6시간씩 일하고 시간당5백원씩 받고일한다. 또 남성상대의 특정직업인 골프장 캐디로일하는 여대생들도 적지않다.

여대생들의 다방 아르바이트가 성업하자 교복과 두발자율화가된 일부고등학교 여학생들까지 다방에나가 레지노릇을 하는 경우도있다.

이같이 여대생들이 유흥업소를 아르바이트로 택하는경로는 신문광고, 친구의 권유, 직업소개소의 알선등인데 이들은 대부분「한학기 등록금만벌고」또는「한학기동안만」이라는 단서를 붙이고 시작하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서울大 高永復교수는『지나치게 금전적 욕망에 사로잡혀 학문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것같다.

학생들의 유흥업소 아르바이트는 학교 교육적 측면등에서나 가정적입장에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젊은이, 특히 여대생 들이 지나치게 금전적 욕망을 좇다가는 끝내 일생을 망치는실수를 범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

문교부 집계에의하면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로 가장많은 직종은 도서정리및 사무보조와 안내·세일·청소원·전전식당 종업원등인데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수에 비해 일자리는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실정이다. 【宋大洙기자】

"無罪확정"첫 新聞공시

서울刑事지법 누명벗은 被疑者 신청받아

무고하게 구속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하다가 무죄확정판결을받은 한시민의 인권회복의 이야기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에의해 일간신문에 공시된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鄭萬朝부장판사)는 27일 무죄확정판결과함께 형사보상금을 받게된 李愚湊씨(49·서울西大門區峴底洞 금화아파트96동202호)의 무죄공시신청을 받아들여 李씨에대한 무죄확정판결및 형사보상결정사실을 2개 일간신문에 공시키로 결정했다.

법원의 이같은결정은 형사보상법에 따른것으로 지난81년12월 신설된 이법24조1항은「법원은 형사보상결정후 2주일내에 결정요지를 관보에 게재해야하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각1회씩 공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조항의 취지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예회복에 부족하기때문에 법원이 널리 공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실질적인 명예회복에 도움이되도록 하기위한 것인데 이러한 장치를 아는 사람이없어 지금까지 거의사문화되어있었는데 이번에 李씨가 처음으로 공시신청을한 것이다.

李씨는 지난80년12월 절도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경찰에 신고되자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허위신고죄로 고소했는데 이고소가 오히려 거짓이라고해서 81년9월2일 무고죄등으로 구속기소돼 그해11월28일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무죄판결을받고 석방되었으며 82년6월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보상을청구, 지난12일 서울형사지법항소6부로부터 미결구금일 87일간에 대한형사보상금 62만5천5백원을 결정받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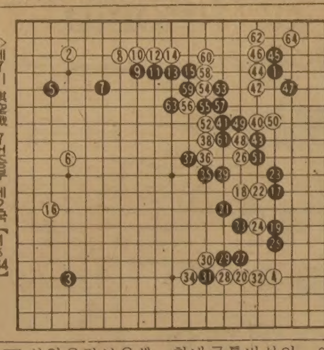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633·8361

승부 예측할수없는 白兵戰

日棋聖戰 제2局

【東京=宋孝彬특파원】제7기棋聖戰7번승부제2국에서 후지사와(藤澤秀行·58)棋聖과 도전자 趙治勳 名人(26)은 이틀째인 27일하오까지도 겨우 64수 만을 두는등 신중한 작전을 하고있다.

이날 상오 전날 봉수된 35수를 개봉함으로써 재개된 이틀째 대국에서 黑을쥔 趙名人은 우변중앙의 白돌 9점을 잡아 중원에 눈부신 세력권을구축한데비해후지사와棋聖은오른쪽 귀를깨고짭짤한 한집을장만, 승부를예측할수없는백병전을 벌이고 있다.



◇제7기 棋聖戰 7번승부 제2국 〔1~64〕

▲黑 도전자 趙治勳 名人 (1패)

▲白 棋聖 藤澤秀行 9단 (1승)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

【趙治勳후원회 事務局제공】

反政府유인물 뿌린 延大生3명에 實刑

서울형사지법 朴峻洙판사는 27일 전延世大생 金喜俊(25·치대4년) 郭永珍(23·철학과4년) 徐永善(22·기상천문학과3년) 피고인등 3명에대한 집회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이들모두에게 각각 징역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21일과 22일 이틀에걸쳐 교내 도서관·학생회관·상경대건물등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成均館大生 3명도

서울형사지법 閔世泓판사는 27일 전成均館大 曺李鳳(23·신방과4년)鄭尙倫(22·신방과3년) 金炫虎(22·사학과4년) 피고인등 3명에 대해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11월2일 교내 대학원건물 4층유리창을 깨고 반정부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며 교내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수류탄훔쳐 銀行강도모의

防衛兵시절 실탄도 챙겨… 4명令狀

서울西大門경찰서는 27일 黃圭鳳씨(22·타일공·서울恩平區葛峴洞 385의21), 朴利俊씨(23·절도전과1범·서울麻浦區阿峴1洞58의9) 韓炳鶴씨(22·폭력전과2범·충남禮山郡禮山邑 新禮院1구499의21), 崔漢雄씨(21·무직·충남洪城郡銀河面大川里159)등 4명을 강도예비음모 군용물특수절도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黃씨와 朴씨는 방위병근무당시인 81년5월과6월사이 경기모부대탄약검사장에서 3차례에 걸처 수류탄6발과 45구경권총실탄 50발등실탄 2백1발, 폭약 도화선 3m등을훔친뒤 지난해10월 서울恩平區葛峴洞 Y다방에모여 구정전에 은행을털기로 모의했다는것.

이들은 또 지난12일 훔친실탄을 사용할 총기를 서울西大門경찰서峴底파출소 초소에서 훔치려했다가 실패했으며 지난15일 하오6시께는 서울西大門區峴底洞 모부대초소에서 M16소총을 훔치려고했던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중 崔씨는 자신의형이경영하는 타일상회에 자주찾아오는 黃씨와 알게돼 함께 모의했으며 韓씨는 黃씨와고향친구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4일 하오11시께 朴씨가 심경의 변화를일으켜경찰에 신고, 崔씨는 26일 하오5시께 누나집인 충남洪城郡銀河面S다방에서 검거됐으며 韓씨는 26일 하오8시께 자기집에서 검거됐다.

◇구정을앞두고 수류탄과 실탄으로 은행을털려다 경찰에 잡힌 범인들.

22억臺 히로뽕 密造

외국인낀 3개파 14명拘束 17명 수배

【釜山】釜山지검특수부는 27일 부산과 제조책 李紀虎씨(55·서울麻浦區城山洞254의7)자금책 崔完洙씨(55·부산南區南川洞)판매책 鄭在龍씨(66·부산南區大淵4洞)등 3개파 1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약사법위반등 혐의로구속하고 서울과 밀수책 成茂成씨(40·안진해운소속 라이트호 전조리장)등 내국인 14명과 중국인 소연좌씨(自由中國 基隆거주)등 외국인3명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이들 3개조직은 지난78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히로뽕원료4백45kg을 밀수입, 22억원 상당의 히로뽕 2백28kg을만들어 국내외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있는데 히로뽕원료60kg과 히로뽕 완제품 2백32kg이 압수된것은 지금까지 가장규모가 큰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파의자금책 崔씨는 78년도 남해안특공대 밀수두목이었으며 판매책 鄭씨는 仁川만다린호10억원대 귀금속및 녹용밀수의 주범으로 활동하다 수배를받게되자 지난해5월 히로뽕제조계의 교수로통하는 李紀虎씨등과 손잡고 새로운 합작조직을 만들어 자유중국 기륭시에서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트린 40kg을 구입, 지난해9월 선실에숨겨 仁川항으로 들여오는등 지난11월까지 2회에걸쳐 75kg의 원료를 밀수입, 머리염색약 제조공장으로 위장한 제조책 李씨의 삼정화학공업사 실험실에서 히로뽕2백28kg을 제조한혐의이다. 【鄭】

金浦공항 짙은안개

승객 1만여명 발묶여

金浦공항부근에 27일 새벽부터 하오늦게까지 짙은안개가 끼어 모든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돼 국제선출발예정21편과 도착예정23편의 운항이 취소되거나 지연되었고 국내선도 16편의 이착륙이 취소됐다.

이바람에 국제선여객승객 8천여명과 국내선승객등 1만여명의 발이 묶였다.

이날 미주지역을 출발, 金浦공항에 도착예정이던 KAL015편(승객2백48명)등 3편은 취리히를 출발한 KAL904편이 金海공항으로 회항했으며 중동발 KAL836편과 502편은 제주도로 회항했다.

金浦공항의 착륙가능 시정은 8백m 이상인데 이날하오4시 현재 시정이 4백m에 불과했다.

"滯賃 舊正전 청산"

勞動部독려 전국 1백65개 업체 64억원

노동부는 27일 전국1백65개업체에서 64억원(근로자2만9천7백80명분)의 노임을 체불하고 있다고지적, 구정까지 이를 모두 청산토록 독려하기로했다.

노동부는 체불노임 청산을 위해 이날부터 구정전날인오는2월 12일까지 24시간 비상근로감독체제에 들어가 상습체불업체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해당기업주의 은닉재산을 추적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위반 여부를 가려 구속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釜山大、성적불량 천2백명에 警告

【釜山】釜山大는 27일 82학년도 2학기 성적불량학생 1천2백명을 학사경고했다.

2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지난1학기의 1천1백87명보다 3·3%인 39명이 늘어난것이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1학년이 7백13명(58%)으로 가장많고 2학년 4백79명(39%) 3학년29명(2%) 4학년이 5명이다. 【鄭】

시라소니

파란만장한 一生마친 李聖淳씨

50年代 野黨쪽주먹王…기독교 歸依

自由黨시절폭력과 俠氣로 이름을 드날렸던「시라소니」李聖淳(사진)씨가 67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닫았다. 풍운아의 말로에 어울리게도 그는 두칸짜리 전세방에서 쓸쓸히 임종했지만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찬송가를 들으며 눈을 감을수있어 아늑한 善終이었다.

그의 사망은 많은사람들에게 1950년대의 정치적허무를 회상케한다.

정치세력들은 民生의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이 정치문화의 빈곤속에서 직업폭력조직들이정치세력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李丁載, 林和秀, 金斗漢등 아직도 국민의 기억에 생생한 폭력조직의 거두들이 정치세력에의해 원격조정되고 있었고, 시라소니 李聖淳씨는 특히 李丁載일파에 맞서는 野黨쪽주먹의 최고봉이었다.

그가 벌였던 수많은 大會戰과 유혈극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단1건의 전과도 기록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그의 주먹의 선명性을 말해준다고할 것이다. 그는 申翼熙, 張勉씨등 야당지도자들에게「그림자 경호」를 자원하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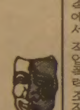
新義州에서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는 천성적인「俠氣」를이기지못해 정착생활을 마다하고 10대시절부터 만주벌판과 중국대륙을 휩쓸고 다니며 발길질과 박치기로 싸움솜씨를 익힌후 서울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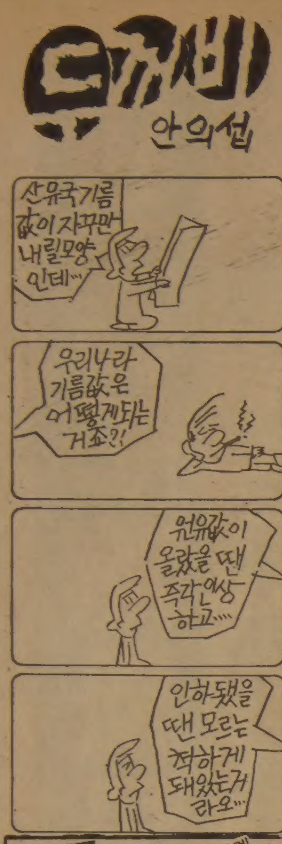
1953년에는 당시 東大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이던 李丁載의 사무실에 단신으로 나타나『어이 대(정재)월남피난민들에 노점을 마련해 줘야겠어』라고 요구하다가 李의 부하들에게 도끼와 삽등으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퇴원후에는 권총과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닐만큼 生의 목표를 李丁載 제거에 두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날 돌연 복수와 유혈의 악순환에 대한 허무를 통감, 무기를 버리고 기독교에 귀의했다. 그의 권유로 폭력의 경륜을 씻고 기독교에 귀의한 동료들도 많았다.

그의 영결식장에서 그와 주먹으로 인연을 맺었던 옛부하, 동료들도 初老의 모습으로 혼란스러웠던 한時代의 장영과 人生무상이 겹치는 순간을「시라소니」는 주고 갔다. 【孫熙永기자】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 금, 토, 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개업4주년 특별봉사>
금번 일류 중국요리사(류지달씨)를 모시고 제가, 다시 가게를 인수, 새로 다양한 메뉴(한·중식)로 모시겠사오니 1차 왕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신 우 올림.

특별가격

볶은밥	$3.25
비빔밥	$3.25
곰 탕	$3.25
짜장면	$3.25
짬 뽕	$3.25
빈대떡	50¢
에그롤	50¢

함경도식 명물 식혜백반 $3.50

고향의 맛
서울
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 전문
615 BLOOR ST. W.
532-0602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9시
김 신 우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우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관중도 熱氣도 없다

초라한 冬季氷上…좋은記錄 기대못해

운영改善策 빨리 모색 豫算낭비 막아야

대한체육회가 연례행사로 열고있는 동계체전이 기록産室로서의 구실을 제대로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한 대회」라는 인상을 주고있다.

이러한 느낌은 26일 泰陵스케이트장과 東大門실내링크서 개막된 64회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대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있다.

빙상대회와 스키대회로 분리하여 실시되는 동계체전은 지난46년1월 첫출발이래 이제 완숙기에 들어섰으나 매년 10월에 열리는 하계체전에 비하면 기록경신의 熱氣와 축제 분위기를 느낄수없는 초라한 대회로일관, 「대회를위한 대회」라는 느낌을 주고있다.

더우기 오는2월의 북가리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출전을앞두고 기록경신에 어느때보다 큰 기대를 걸었던 이 대회에서는 27일 한국신기록 1개(李永河·남일반1천m)가 나왔으나 전체적으로 기록이 저조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동계체전에 모두 2천3백여만원(빙상 1천3백·스키1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빙상인들은 「종합대회라는 의의를 빼고나면 큰소득이없는 대회」라고 말하고 있다. 빙상경기장에는 경기임원들과 선수, 가족만이 어울려 서성거릴뿐 썰렁한 모습이 매년 되풀이되고있다.

아이스하키의 경우도 얼마전 끝난 종합선수권, KBS배대회만큼의 열기를 찾아볼수 없었으며 경기장부족에밀려 상오7시부터 경기를갖는 피겨는 아예 관중을 거의찾아 볼수없는 한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기록을 바라는것은 무리일수 밖에없다. 수준낮은 대회신기록만 양산될뿐이다.

빙상관계자들은 『지금과같이 기록경신도 기대할수없고 팬들도 관심을 기울이지않는 대회라면 애써 많은 예산을 들여 대회를 열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동계체전 운영비용을쪼개 빙상연맹과 스키협회주최 대회를 집중지원하는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했다.

또한 체육회는 동계종목의 시설투자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競技단체 집행부

◇대한탁구연맹 ▲회장=趙正源 ▲부회장=高棋采·金命祚·洪基榮 ▲전무=鄭東仁 ▲총무=洪榮佑 ▲기획=金榮鎬 ▲경기=강은석 ▲홍보=李啓卓 ▲연구=李健範 ▲심판=尹貴鉉 ▲이사=金英在·강신부·김용길·金廣鎬·王昌鎬·金哲雄·李忠三 ▲감사=崔德九·鄭眞宇

29일 楊弘洙방어전 OPBF 플라이급

동양·태평양 권투연맹(OPBF) 플라이급 챔피언 楊弘洙(28)가 申喜燮(20)의 도전을받아 29일 하오 문화체육관에서 타이틀 6차방어전을 벌인다.

李永河 1천m서 한국新

冬季빙상 2일째 大會처음… 1분18초73 力走 0·05秒 단축

3년만에 자기記錄깨

라이벌羅潤洙 大會新에 그쳐

◇피겨스케이팅 쇼트프로그램에서 여자국교부B조의 池炫靜(리라)이 묘기를 펼치고 있다.

제64회 전국체육대회 동계빙상 이틀째 (27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한국 신기록이 나왔다. 남자1천m에서 李永河(대우)는 1분18초73으로 3년만에 자신의 기록을깨고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아이스 하키에서는 高麗大, 景城高, 花郎(캐나다동포팀)이 각각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스피드

27일 泰陵스케이트장에서 벌어진 남자일반 1천m에서 李永河(대우)는 1분18초73으로 역주, 자신이 지난 79년12월 세운 한국최고기록 1분18초78을 3년만에 0·05초 단축하고 대회첫한국신기록을 세웠다.

李永河의라이벌 羅潤洙(단국대)는 1천m에서 李보다 0·38초 뒤진 1분19초11로 남대부 대회신기록에그쳤다.

이날 벌어진 1천m 3천m 경기에서는 대회신기록 12개가 나왔다.

◇제2일기록(각종목 1위)

▲남대1천m=羅潤洙(단국대) 1분19초11 (대회신·종전1분19초79) ▲동여대부=林賢淑(동국대) 1분31초47 ▲동남고부=①李準鎬(서울고) 1분24초17 ②羅聲愛(의정부고) 1분24초46 ③金炯元(경기고) 1분25초40 ④李圭哲(서울체고) 1분25초56 (이상대회신·종전1분25초86) ▲동여고부=李連珠(유봉여고) 1분30초15 (대회신·종전1분31초73) ▲동남중부=李承桓(수성중) 1분30초38 ▲동여중부=朴霽美(의정부여중) 1분37초14 ▲동남일반부=李永河(대우) 1분18초73 (한국신·종전1분18초78) ▲동여일반=李聖愛(외환은) 1분32초38 (대회신·종전1분33초44) ▲동남국부=崔宰榮(리라국) 1분35초76 (대회신·종전1분35초88) ▲동여국부=李垠宙(춘천교대부국) 1분42초64 (대회신·종전1분42초80) ▲남중 5천m=金成晩(의정부중) 8분31초94 ▲여대3천m=王瑠惠(이화여대) 5분19초54 ▲동여고부=李京子(일동종고) 5분02초15 ▲동여중부=張銀京(유봉여중) 5분13초47 ▲동남국부=①金종오(리라) 4분59초59 ②조승현(구정) 5분10초56 ③金유철(리란)

피겨

◇중간순위 ▲여대A조=①林惠慶(한국체대) 108·2점 ▲동B조=①金志妍(경희대) 48·7점 ▲남고B조=①趙宰衡(경복고) 49·9점 ▲남중B조=①鄭聖一(덕수중) 55·9점 ▲여중B조=①崔允廷(숭의여중) 43·3점 ▲여국B조=①池炫靜(리라) 56·2점

高大 決勝 景城(고등) 花郎(중등)도

아이스하키

高麗大가 光云大-仁川전문대승자와 대학부 패권을다투게됐다. 高麗大는 慶熙大와맞서 우세한 개인기로 1피리어드부터 주도권을 잡아 7-1로 완승, 결승전에 진출했다.

한편 고등부에서는 지난해 우승팀 景城高가 강호光成高에 10-5로 승리, 28일 결승전서 徽文高와 맞붙게됐으며, 캐나다 동포팀 花郎은 중학부서 景城中을 6-1로 완파, 徽文中과 결승전을 벌이게 됐다.

◇준결승전

▲고등부

경성고교 10 (3-2, 3-1, 4-2) 5 광성고교

▲중등부

화랑 6 (0-0, 4-1, 2-0) 1 경성중학

▲대학부(캐나다)

고려대학 7 (2-1, 1-0, 4-0) 1 경희대학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체조協會에도 雜音

李회장 새理事陣 불만 "辭退하겠다"

대한체조협회도 기업인회장과 경기인과의 마찰로 진통을 겪고있다. 체조협회 李富鎔회장(大林산업전무)은 대의원총회가 선정한5인전형위원에의해 구성된 이사진에 불만을 표시,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되지않는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23일 열린 체조협회정기대의원총회는 李富鎔회장을 유임시키는 한편 서울, 大邱, 全南, 仁川, 忠南등 5개지역 대의원들로 이사진구성을 의뢰했는데 전형위원에의해 구성된 이사진에 대해 李회장은 『회장의 의사가 반영되지않은 임원진과는 함께 일할수 없다』고 말했다.

李회장은 22명의이사중 아시안 게임 성적부진에 책임을 져야하거나 협회기능을 저해한 인사들이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경기인들은 일부 이사들의 퇴진을 전제로 李회장과의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체조협회는 지난 10년동안 경기인들의 내분과 회장단과의 마찰로 6차례나 회장이 바뀌었다.

프로풋볼 소식

"슈퍼보울" 美國전역떠들썩

票사기戰爭, 한장 30萬원도

오는 31일(한국시간)캘리포니아州 패사디나 로즈보울구장에서 벌어지는 아메리칸풋볼 제17회 슈퍼보울을 앞두고 美國 전역이 떠들썩하다.

마이애미돌핀즈가 3번째 패권을 차지하느냐, 워싱턴 레드스킨즈가 처음으로 정상에 오를것인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장권을 손에쥐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로즈보울구장입장권은 모두 10만장. 이가운데 1만5천장은 美프로풋볼연맹(NFL)이 확보, 돌핀즈와 레드스킨즈팀도 각각 2만5천장씩을 배당받게된다.

슈퍼보울을 본거지에서 치를 팀은 전체표 가운데 10%를 갖게 되는데 LA램즈와 레이더즈가 로즈보울구장이 있는 캘리포니아州남부에 속해있어 두팀이 각각 4천장씩을, 샌디에이고차저즈가 2천장을 배당받게 됐다. 10만장중 나머지 2만5천매는 NFL소속의 23개팀(배당받은 5팀제외)에게 균등배분된다.

팀이나 NFL에 배당된 표는 구단종사자와 친지들에게 우선 판매되며 나머지를 일반에게 팔게되므로 표값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있다. 풋볼구장의 로열박스인 50야드 라인부근의 표는 1장에 4백달러(약30만원)이나 벌써 5백달러로 거래되고있으며 그나마 6장을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득점지역부근 표는 1백50달러에서 2백달러로 뛰었다.

브라이언트監督 심장마비로死亡

◇故브라이언트 監督

슈퍼보울의 熱氣와함께 미국축구사상 최다승리 감독인 前앨라배마大 폴·브라이언트 감독이 26일 심장마비로 사망, 큰충격을 일으켰다.

베어(곰)로 불린 브라이언트씨는 지난달 69세로 모교인 앨라배마大서 정년퇴임했는데 사랑하던 풋볼을 떠난 충격이 그를 죽게한것이 아닌가 팬들은 슬퍼하고 있다.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책종류 환영함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City of Toronto

— 알 림 —

토론토시 노년층
주택소유자들은
100달라 세금면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당신 또는 당신배우자 또는 모두 :

○1983년 3월31일이전에 65세가 넘을때
○1983년 3월31일을 기준으로 매달 연방보증소득 보조금을 받을때
○시세를 징수해온 주택지에서 살고 있을때
○5년이상 시에 1983년 3월31일 기준으로 주택지를 소유하고 있을때

당신은 1983년 노년 주택소유자를 위한 토론토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읍니다.
당신이 자격은 있으나 신청서를 받지 못했을경우 또는 더이상의 내용을 알고싶을 경우는 시청 일반접수계(367-7036)으로 연락하십시요.
1982년 세금공제를 받았을 경우라 하더라도 1983년은 다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1983년 3월31일이전에 세금공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요.

Roy V. Henderson
City Clerk

"종합覇權은 우리에게…" 『목표는 오직 하나 우승뿐』 三星 라이온즈선수들이 83년 전기우승, 종합패권을 향해 달리고있다. 【巨濟島=權周動기자】

巨濟섬을 삼킬듯… "OB설욕戰" 다지는 獅子들엔 밤낮이 없다

「겨울이 없다」 —프로야구 強訓현장을 가다

三星 라이온즈

『부웅…』 섬마을을 돌아오는 긴 뱃고동이 개막전의 차임벨처럼 가슴을 설레게 한다. 釜山에서 엔젤호로 뱃길 1시간20분, 제주다음으로 큰 巨濟섬 新縣邑 古縣里의 따스한 포구에 은밀하게 83년을 준비하는 三星라이온즈의 베이스캠프가 숨어있다. 三星조선소 뒤편 언덕이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는 잔디그라운드.

신임李忠男조감독이 짜내는 훈련프로그램은 무척재미나다. 가볍게 한줄로 서서 몸을 풀며 그라운드 언덕길을 달린다. 곧이어 줄의맨끝에있던 선수가 전력질주, 선두에 나선다. 李忠男조감독의 호루루기신호에 맞춰 제차례의 선두달리기를 모두 마칠때쯤이면 선수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머리위로는 아지랑이가피어오른다.

달리기와 체조로 알맞게 몸을 푼 다음 재미난 게임을 시작한다. 양발을 머리높이로 10번 차올리고 달려나가기, 그라운드볼을 받는 자세로 쪼그려 10번 뛰고 달려나가기, 앞으로 10번 발을 차올리고 달려나가기, 좌우로 몸을 비틀어 걸음 걷고 달려나가기, 뒷발뒤어 달려나가기, 몸뒤틀어 달려나가기…

프로 첫시즌을 맞게되는 강타자 張孝祚는 훈련의 즐거움을 감추지못해 연방 입이 벌려진다. 주위의 눈총때문인지 굳게다문 입, 굳은 얼굴로 훈련장에 나섰던 李萬洙도 10여가지 프로그램이 끝날쯤이면 빙그레 꼬마팬들과 손바닥을마주치며 웃음이 흘러나온다.

하루 평균 20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훈련·유연체조가 실시된다. 그중 5~10가지는 매일 새로운 것이다.

다음 순서는 배팅과 웨이트·트레이닝. 두조로 나뉘어 한편은 그라운드에서, 또한편은 체육관에서 몸과 기술을 다듬기에 여념이없다.

『日本에서 좋은 경험을 얻어서인지 李忠男씨의 훈련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돼요. 선수들에게 지리한감을주지않으니 효과도 훨씬 높아지겠지요』 훈련분위기를 살피며 徐永武감독은 李忠男조감독의 훈련지휘에 만족한듯한 표정이다.

李조감독의 지시에따라 타자들의 스윙솜도 크게달라지고 있다. 온몸을 휘두르던 스윙이 허리와 팔·무릎관절, 손목의 스냅으로 날카롭게끊어치는 작고 빠른스윙으로 바뀌고있다. 李萬洙, 吳大錫, 張孝祚등이 주요대상인물이다.

83년 시즌오픈을 준비하는 三星사자들의 눈빛은 섬뜩한 느낌마저 준다.

82년 우승을 놓쳤다는 자책감, 83년 기필코 그 울분을 풀어야한다는 각오로 사자들의 스윙에서는 찬바람이 인다.

『지난해 사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읍니다. 모두가 우승후보라고 지목하곤 했지만 실제 승부에서 OB에 밀렸읍니다. 지금 우리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집념은 대단합니다. 선수들의 의욕과좋은 코칭스태프,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83년을 뛸것입니다』

주장 裵大雄이 회한을 섞어 새해 포부를 토해 놓는다.

『전기우승, 종합우승』은 83년을 맞은 三星라이온즈의 코칭스태프와선수들 모두의 목표요 생명선이다.

이 지상목표를 가슴속에 새기기 위해 사자들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동안 東萊 梵魚寺에서 참선과 예불을 거듭했다. 새벽3시30분 30명이 한법당에 좌정, 무념무상의 참선으로 마음을 씻고 예불로 마음을 닦았다. 성호스님 이능가스님의 선지도와청신환화로 사자들은 살아가는 의미를 음미했고 살아가는 자세를 새롭게 다졌다.

2월6일까지는 忠武수산전문대로 나가 체력과 기본기훈련을 마치고 2월10일부터 3월13일까지 한달동안 日本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종합전술훈련을 펴게된다.

『82년 三星은 가장불행했던 팀입니다. 시즌초반부터 끝날때까지 내내선두다툼의 초조와긴장속에 1년을 보냈지요』

검은 얼굴에 한결주름이 더한 徐永武감독은 두번다시 그런 불행은 없을것이라고 다짐한다. 【方錫鉉기자】

●토론토 창간호●

한국일보 家族이면 누구나 週刊한국을

드디어 토론토 창간호 발행

■토론토 한국일보와 함께 매주 수요일 4페이지씩 발행되던 인기 독서물 〈주간한국〉이 31일부터 별도 발행되기 시작했읍니다.

■한국일보 정기독자에게는 신문과 함께 무료로 받아 보실수 있고 한인 식품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가격 40센트)

■매주 월요일마다 발행되는 주간한국은 24페이지 전면에 흥미 진진한 화제거리로 꽉 차있읍니다.

시내각식품점에서 주간한국 절찬리판매중 ·40센트·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회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RASCO 냉동 -★에어콘, 히팅, 워킹쿨러, 후리저,
Washers, Dryers, Stoves등등 시설·판매수리.
전화: 439-0047 Mr. 최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921-7486(R) 유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이삿짐센타

이사하실 분은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전화 : 533-9233 Mr. 유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브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 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Minit-tune Gain gas station
We do all repairs ◉334 Dundas St. E. Mississauga
전화: (B)273-3920 (R)273-9821 이태경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자동차 수리 (파타임)
전기 일체에 관한 일
전화 : 291-4547 Mr. 윤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육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육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메니저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광고문의 533-2361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햄버거숍에서 파트타임 오전중에 일하실분.
오전 11시~오후 3시
전화 : 447-1460 (오후 3시 이후)

시외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Barrie 근처
전화 : 1-(705)-458-4326

도넛숍 카운터 헬퍼 구함.
(1)밤12시~아침8시 (2)주말 아침8시~오후4시
전화: (B)690-3920, (R)491-8734 Mr. 김

용모 단정하고 영어에 불편이 없으신분 구함.
Eaton Centre안(직접 내방원함) 1층 분수대옆
SWENSEN'S ICE CREAM

영어할수 있는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주5일, 교통 편한곳임, 다운타운 지역
전화: 699-3953

한국요리사, 입주하셔서 가정돌보실 분.
내방 요망합니다. 538 St.Clair Ave. W.
전화 : 654-6609 Mr. 유

Kitchen Helper 구함.
5304 Yonge St.(영 남쪽, Finch지하철서 10분거리)
전화 : 221-1621(오후4시 이후), 826-7676(오후6시 이후)

5 일에 $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남자친구를 찾고 있읍니까?
24살의 남자가 18세~30세 여성을 찾고 있읍니다.
전화: 532-3465 Marshall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221-2556 Mrs. 리(Finch & Yonge 근처)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광고문의 533-2361

매 매

가게 급매.
리스: 3년+옵션, 아스킹: $8,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Ralf

Hardware 비지네스 $25,000
좋은위치, 넓은 파킹장, 렌드및 장비양호
전화: 883-1721 Harry Pridham

버라이어티 스토아(Tuck Shop) 매매
아스킹: $20,000+스탁 주매상: $2,500~$3,000
전화: 1-561-1911 Mr. 정(저녁7시 이후)

◉연평균 주매상 약4천불의 버라이어티 스토아
렌트: $450, 4년+5년 이층아파트 입주 가능
권리금: 3만5천.(전화 225-1204)

Soft Ice Cream 머신 일절 매매.
★산지 2년 됐음.
전화: 961-3517

매매 (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 242-2630 Mr. Park(밤 10시30분 이후)

가게 매매 또는 매니저 - 해밀톤
주매상: $5,000, 렌트: $500, 리스: 5년+5년
전화 : 498-5242(토론토)

에드몬톤에 있는 주유소 급매.
정비공장 가스스테이숀, 자동차 Part Shop, 토잉설비
Asking: $125,000(설비+Part+토잉트럭 완전포함)
연 Net Income: 7만불
연락처: 1-403-475-9613, 1-403-475-1631 Mr. 박
(Collect Call도 무방함)

COIN LAUNDRY
28 Washers, 2 Heavy Duty Washers, 11 Dryers,
1 Pop Vending Machine, 1 Soap Machine.
Lease august 31, 1988, extention possible.
Yearly net income $24,000(Minimum)
Asking price $50,000(one price)
Address: 3412 Dundas St. W. Tor.(in Plaza)
Telephone: 762-1264

(1)Drive in Restaurant 매매(*4년된 독립빌딩과 비즈네스)
◉$75,000 down, $100,000 주인이 모게지 잡음.
◉좌석44, 주류허가, 45대이상의 주차장, ◉대지1에이커는 16년간 리스가 있고, 건물확장·신축·비즈네스 전환도 가능함. (2)버라이어티 년평균 주매상: $5,500 렌트: $800
Royal Trust 곽석용(전화: 752-3111)

다이아몬드·반지 4부 VS, H, Color
Appraised $1,900 Sale가격: $950 ◉Band(가락지)와 한쌍
전화: 767-1702 박(오후6시 이후)

Health & Bulk Food 가게매매(Dry Fruit, Nuts, Tea, Coffee, Candy, Chocolet) ★ 짧은시간·좋은이익.
전화: 783-6464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Tuck Shop 급매, 해밀턴 지역, ◉300세대 성인아파트, 인근 타운하우스, ◉드라이크리닝…사진취급 ◉안전사업, 입주가능, 아스킹: $19,000+스탁 1-561-1911 Mrs. 정(저녁6시

◉아이스크림 커피숍: 바쁜 Indoor Mall, 일요일 닫음, 리스 9년, 권리금: 7만 9천 ◉가게와 건물: 1)토론토 서쪽60마일, 주매상: 6천+티켓, 2Bed Rm.아파트 3개, 가격: 19만불, 2)주매상: 5천5백, 짧은 영업시간, 가격: 19만불 ◉코리아타운 투자용건물: 40만불 다운페이, 가격: 89만9천.
〈황용현부동산〉 Call 임윤식(Tony) 449-8644 (B), 636-7950(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1Bed Rm. 방세 놓습니다.(부엌 포함)
월: $200, 653A Bloor St. W.
전화: 533-0168(Mr. 김) 오후1시~밤10시사이 전화 요.

아파트 렌트, ◉1Bed Rm. 독신, 월 $190
◉2Bed Rm. 부부, 월 $290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가게 렌트 (1700 Sq.feet)-런던지역(Dochester)
Walk-in 쿨러가 있으며 버라이어티나 take out food으로 적당.
전화 : 624-5817

가게 렌트.(약500sq. ft.) ◉렌트: 월650
꽃가게 그로서리 적합, 다운타운.신개발지역.
전화: 766-4504, 493-9599, 365-1489 다니엘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꽃집 욕-다운(York Downs Florist) -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767-1702(6시이후)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광고문의 533-2361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전화 : 868-092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흥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면상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